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백악관에서 H-1B 비자의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올리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앞선 2024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영향력 있는 올인 팟캐스트에 출연, 미 대학 졸업자들에게 영주권을 주겠다고 취임 첫날 우선순위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미 대졸자에 영주권 제공 공언했던 트럼프, H비자에 10만달러

H-1B 포고령과 골드카드 행정명령 19일 서명, 혼란 발생
이민국, 기존의 H-B 소지자, 갱신에는 영향없어, 신규 발급만 해당
10만달러 H-1B, 이민전문가들 이구동성 “한인 유학생 영향 적을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두서없는 이민정책이 한가한 금요일 오후를 마치 청천벽력처럼 흔들어 놓았다. H-1B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로 100배 올리겠다는 포고령(proclamation)이었다. 설상가상, 매년 10만달러씩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이민(EB1,2)을 백만달러 골드카드로 대체하는 행정명령

(전체 기사 읽기)
에도 서명했다.
지난 관세정책 등으로 일단 크게 지르고 나중에 수습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진행방식은 악히 잘 알고 있지만 숨이 턱 막혀왔다. 그대상이 합법적인 이민자 및 유학생이며, 빅테크에서 영세기업까지 취업의 통로가 바늘구멍처럼 좁아진다는 의

ICE 레먼스터서 이민자 체포 위해 5세 여아 미끼로 사용 논란

레먼스터 이민자 가정, 비디오 촬영 ICE 딸 붙잡은 장면 공개 하루 체포 쿼터 3,000건 달성위해 체포 방법 더욱 공격적

(전체 기사 읽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이민단속국(ICE) 요원들이 불법이민자인 부모를 체포하기 위해 5살 된 딸아이를 집 밖에서 한동안 붙잡아 두었다고 레먼스터 과테말라 이민자 가정이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보스톤글로벌은 23일 경찰이란 글자가 새겨진 조끼를 입은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레먼스터(Leominster, MA) 소재 집 앞에서 5세 여아를 의자에 앉혀두고 둘러싸고 있으며 부모들에게 자신해서 나와서 아이를 데려가고 압박하는 일련의 비디오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아버지 에드워드 힘 메히아는 “아이를 건드리지 말라” 고 외쳤지만 요원들은 그에게 손짓하며 “나와서 데려가도 좋다” 고 말하며 그에게 나올 것을 강요 >>6면으로 계속

THE PRO REALTY GROUP 수잔리 부동산

보스톤 투자, 주택, 콘도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선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애널리스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주저아 하블린터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경력 20년 이상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마이클리 모기지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지금 이 채용자 기회!
내 집 마련과 투자까지 책임집니다!
저금리 융자 · 채용자 전문, 맞춤형 금융 솔루션으로
최적의 결과를 드립니다.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NMLS 1464242
978.314.8818 mtgwithmike@gmail.com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GMCC, NMLS 254895

Disclosure: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is an Equal Housing Lender. We do not discriminate based on race, color, religion, national origin, sex, disability, or familial status. Licensed Mortgage Banker-NYS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 This is not a commitment to lend. Terms and conditions apply. All loans subject to underwriting approval.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교 50주년 맞은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힘차게 새학기 출발

11월 22일 개교 50주년 행사, 내외빈 초청해 진행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1975년에 개교하여 50년의 긴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뉴잉글랜드 한국학교(교장 남일, 학부모회장 박선영)가 9월 20일 전교생 개학식을 열고 2025~2026학년도를 시작했다.

박현아리더 교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학식은 개회선언, 국민의례, 주요 학사일정 안내순으로 이어졌다. 65명의 담임 교사와 32명의 보조교사가 함께하는 총 9개 과정 소개 시간에는 각 학급마다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와 선생님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또 재미한국학교 7개 지역협의회에서 수여하는 '2025 글로벌 리더십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된 37명의 보조교사를 대표해 백종우 보조교사가 상장을 받았다.

남일 교장은 축사에서 "오늘 우리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개교 50주년 개학식을 함께 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여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노고와 수고로 2세들에게 조국의 언어와 문화, 역사를 가르쳐 왔다. 이에 감사드리며 여기 모인 학생들이 훗날 세상 곳곳에서 한국인의 뿌리를 잊지 않고, 지금은 작지만 이 작은 겨 자씨들이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

들에게 선한 그늘과 힘을 줄 수 있는 큰 인물들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박선영 학부모회장은 "오늘 새 학년을 멋지게 시작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학부모회의 간식 제공을 비롯한 모든 사업들은 학생들을 위한 여러 사업이다. 학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라며 환영사를 대신했다.

학생들은 개학식 마지막 순서로 '우리가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을 서약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급 1과정 금강반에 재학 중인 최정인, 장건 학생이 전교생을 대표해 선서한 후 개학식은 마무리됐다.

예년보다 많은 신입생이 입학했지만, 2025년도 가을학기 개학 첫날 풍경은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어김없이 각 학급 교실 유리창 너머로 자녀의 모습을 담기에 여념이 없는 학부모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자녀를 처음 학교에 보낸 한 신입생 학부모는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어 걱정이 많이 했는데, 이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는

〈전체 기사 읽기〉

모습을 보아 감동했다.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고 전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기초준비반 및 1~2과정(리더 김희연·김진아 교사), 기초 3~4과정(리더 김혜련 교사), 초급 1~3과정(리더 주민정 교사), 중급 1~3과정(리더 조나단 교사), 고급 1~3과정(리더 류민희 교사), 세종 1~2과정 및 성인 1~3반(리더 우다혜 교사), 작문교육 1~6부(리더 이정설 교사), 문화교육부(리더 양수연 교사), 보조교사부(리더 박현아 교사) 등 9개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또한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를 위한 서예반(지도 정성렬), 수묵화반(지도 김민희)도 무료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다음 행사는 11월 1일 개최되는 학부모 초청 공개수업이다. 이어 11월 22일에는 개교 50주년 기념 제3차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날은 동시·동요 발표와 함께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50년 역사를 이끈 이사회, 교사회, 학부모, 후원단체장, 그리고 정부 대표들을 초청해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교사회는 현



9월 20일 뉴튼 소재 오크힐 미들스쿨에 위치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강당에서 열린 개학식 모습



우리가 지켜야 할 10가지 규칙을 대표 선서하고 있는 장건 최정인 학생



백종우 보조교사-글로벌리더십어워드 수상

재 한글교육, 미술교육, 음악교육 부문 교사를 모집 중이다. 지원은 신청 링크 (<https://forms.gle/9iriTX-hQfvuD49vy6>), 학교 전화 (508) 523-5389, 이메일 koreanschool.ne@gmail.com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ksneusa.org)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령탕
SEUL SEOLRYEONGT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SPICY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emkyu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oeg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JUNG KWAN JANG
MA주 정관장 공식 브랜드 스토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가위 선물

녹용 기력충전 - 천녹정

정관장 공진단 - 황진단

비만억제 및 혈당관리 GLP-1 활성화

Burlington점 고객센터 건너편 위치
\$150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Tel) 929-600-4880

MART



9월 20일 브루클라인 소재 앤더슨 파크에서 열린 뉴잉글랜드 연세대 동문회 가을 바비큐 파티에 참석한 동문들(사진=연세대 동문회 제공)

연세대 동문회 가을 바비큐 파티에 역대급 인원 참가 성황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연세대학교 동문회가 지난 9월 20일 토요일 브루클라인 소재 앤더슨파크 (Larz Anderson Park)에서 개최한 2025 가을 바비큐 파티에 창립 이래 역대 최대 인원인 80명 이상의 동문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따뜻한 정과 음식을 나눴다. 이번 바비큐 파티에는 보스톤에 새로 이주한 동문들도 다수 참석해 새로운 인연을 쌓았으며, 젊은 후배들과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선배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대 간 소통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전체 기사 읽기〉 행사에서는 맛갈스러운 삼겹살과 목살, 군고구마와 옥수수 등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었으며, 아이들을 위한 스모어 스테이션도 마련되어 어린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한선배 동문이 준비한 비빔국수와 술빵은 참석자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으며, 동문회 행사에 특별한 풍미를 더했다. 뉴잉글랜드 연세대학교 동문회는 '친정집처럼 편안하고, 개그콘서트처럼 재미있는' 모임이라는 평

을 받으며, 참석자들이 부담 없이 즐기고 웃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백현일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과 모임을 통해 동문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동문들에게도 열린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뉴잉글랜드 연세대학교 동문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임과 행사를 통해 동문 간 우정을 돈독히 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연세인의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시장 선거 재검표, 미셸 우 단독 후보 확정

다로사 후보 2428표 득표에 그쳐, 3000표 기준에 못미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예비선거 재검표 결과, 미셸 우 현 시장이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재검표는 토요일 시청사 수도관 파열로 지연됐다가 이날 마무리되었으며, 개표 결과 우 시장이 66,859표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조시 크래프트 후보는 21,481표로 2위였고, 커뮤니티 활동가 도밍고스 다로사 후보는 2,428표를 얻는데 그쳤다. 이는 초기 집계보다 19표 늘어난 수치지만, 본선거 진출에 필요한 3,000표에는 크게 못미쳤다. 선관위는 이를 공식 인증했다.

다로사 후보는 재검표 결과를 수용하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기록된 것은 기록된 그대로다" 라며 본선거 무산 을 인정했다. 그는 또 "이번 일이 보스톤에 진지한 교훈을 남기길 바란다. 현직자나 막대한 재력을 가진 후보가 아니더라도 유권자

〈전체 기사 읽기〉



와 언론이 후보를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우 시장 선거캠프는 선거관리 당국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오는 11월 4일 치러질 본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성명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참여해준 보스톤의 약 9만4천 유권자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동네와 모든 선거구에서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에 곱히 감사드리며, 보스톤을 모두의 집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겠다" 고 말했다.

이번 본선거에서는 시장 선거 외에도 여러 시의회 선거가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hsb@bostonkorea.com



자영업자를 위한 절세 전략 및 은퇴 준비

**전문적인 세무전략과 절세플랜
재정 전문가가 알려주는 은퇴플랜**



SPEAKERS

Kenny Shin
UNI President / CEO



Gina Shin
UNI VP / EA 세무사



Lori Moon
District Marketing Director



EVENT DETAIL

날짜 : 은퇴/세금절세 10/17(금) 7PM
10/18(토) 10AM

메디케어 10/18(토) 1PM

장소 : 117 Kendrick St Suite 300
Needham, MA 02494

RSVP : UNI Boston 617-468-6446
unioffice.ma@gmail.com

 www.uniwfm.com

주정부 기만적 영업 클린초이스 에너지에 허가 취소 추진

낮은 요금으로 유혹 후 변동요금제로 요금 폭등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가 제3차 전력 공급업체의 ‘기만적’ 요금 제안에 대해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저소득 이민자 가정은 이 같은 제 3 전력공급업체의 낮은 요금 유혹에 이를 선택했다가 몇배 많은 전기요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DPU)는 최근 클린초이스 에너지(Clean-Choice Energy)가 부정확한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510만 달러의 벌금 부과와 주내 영업 허가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클린초이스는 2년전가정에 우편 물을 보내 기존 유틸리티보다 훨씬

저렴한 전기 요금을 약속하며 가입을 유도했다. 특히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전기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노리는 한편, 재생에너지 100% 공급을 내세워 매력을 더했다. 그러나 DPU 조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실제보다 훨씬 높은 과거 요금을 비교 기준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일부 고객들은 가입 초기 이후 변동 요금제로 전환되면서 수개월 동안 요금이 133%에서 최대 214%까지 치솟는 피해를 입었다. 회사 측은 시장상황과 비용에 따른 조정이라고 주장했으나, DPU는 계절과 무관하게 요

금이 일반적으로 오르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보스톤 기후행동네트워크의 해산과루키 대표는 “클린초이스는 소비자를 직접 겨냥하는 전력 업체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기업 중 하나”라며 “주 당국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클린초이스대변인 케이트 콜라리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문제성 우편물 발송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객과 규제 준수를 매우 중시한다”며 “DPU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필요하다면 자발적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는 캘리포니아, 하와이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전기 요금이 높은 주다. 그러나 1990년대

<전체 기사 읽기>

도입된 경쟁 전력 시장은 요금 절감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고,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지역 사회를 겨냥한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 전체 주민들은 총 7,300만 달러를 더 지불했으며, 지난 9년간 누적 피해액은 6억 5,130만 달러에 달한다고 검찰총장실은 밝혔다.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 안드레아 캄벨 검찰총장, 미셸 우보스턴 시장 등 정치 지도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촉구해왔다. 보스톤시는 자체 전력 공급 프로그램 ‘보스톤 커뮤니티 초이스일렉트리티’를 통해 안정적인 투명한 요금을 제시하고 있으며, 오는 12월부터 2년간 유효한 새 요금제는 유틸리티사 에버소스보다 낮다.

소비자 옹호 단체들은 이보다 더 나아가 아예 주거용 전력 시장에서 제3차 공급업체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올리버 셀러스-가르시아 보스톤시 그린 뉴딜 국장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들은 금지되거나 최소한 각 지자체가 시장에서 배제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정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박현아 HyunAh Park
김유림 Yulim Kim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션원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LET'S GET REAL ABOUT GAMBLING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미 대졸자에 영주권 제공 공언했던 트럼프, H비자에 10만달러

▶▶1면에 이어서

미였기 때문이다. 추후 수정되고 축소되는 등 조정과정은 거치나 끝까지 골격은 유지되고 있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처음 소식을 접한 것은 X(구 트위터)였다. 신청 수수료가 10만달러로 인상된다고 말했으나 아직 출처는 정확치 않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얼마되지 않아 블룸버그와 AP, 연합 뉴스에서 속보로 백악관의 포고령 서명 소식이 전해졌다. 포고문 또는 포고령은 대부분이 휴일 등을 선포하거나 권고를 담고 있지만 일부는 헌법이나 법에 근거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포고령이라고 적는다.

하워드 루트러니 상무장관은 서명 자리에서 언론에 “신청료가 매년 10만달러씩 부과되며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매년신청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해 H-1B관련 신청자, 학생, 그리고 기업 등 모든 관계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H-1B 비자의 주 소비층이었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등의 빅테크 회사들은 회사의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H-1B 소지자들에게 미국에서 출국하지 말고 머물라고 권고하고 미국 외부에 있는 소지자들은 이 포고령이 시행되는 9월 21일 이전까지 즉시 귀국하라는 메시지를 돌렸다.

대환란이 발생하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빚발치자 백악관은 당초 포고령에 있던 내용에서 한발 물러났다. 백악관 대변인 케틀라인 레빗은 트위터를 통해 10만달러 수수료는 신규 신청시에만 한차례 적용된다고 수정했다. 또한 기존의 비자소지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미국 입국에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USCIS)도 하루 지난 20일자로 성명을 내서 이 같은 혼선을 바로잡았다. 조셉 에들로우 이민서비스국장은 9월 21

일부터 시행될 10만달러 수수료는 기존의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앞으로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올인 팟캐스트(All-in Pod cast)에 출연해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들에게 영주권을 허용하겠다고 이 취임 첫날 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그런데 9개월 만에 비자신청에 수수료 10만달러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크립토는 사기라고 비난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크립토 우선 정책을 시행하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서명했던 말바꾸기는 적어도 피해자를 양산하지는 않았다.

변호사들, 전례없는 수수료 소송으로 이어질 것

초반 혼란이 일부 정리된 월요일 보스톤의 한인 이민변호사들은 10만달러 수수료 부과 정책이 터무니없는 정책이며 이내 소송에 직면해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성기주 변호사는 “6-7만달러의 연봉을 지급하는데 10만달러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하고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정리되지 않아 차분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연진 변호사는 “영주권을 주는 것은 의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이며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바꿀 수 없다. 이 같은 일은 지금까지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일이며, H-1B 수수료도 포고령에 적혀 있는 내용을 대변인이 수정할 수는 없다. 이민국 직원들을 이를 바탕으로 세부규정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임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모두 “현재 이민변호사협회 는 발각 뒤집어졌다”라며 “이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며 수년이 걸리는 소송의 특성상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성 변호사는 “세부 규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확실한 것은 없다. 골드카드 영주권은 위험 소지가 높다. 현 시점에서 동요하기 보다는 차분히 지켜보자”고 조언했다.

한인들에게는 큰 영향 없어

2024년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H-1B의 매년 신청자들은 많고 추첨에서 당첨되는 경우는 20%에 불과하다. 그중에 한인들은 1%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다. 따라서 H-1B의 수수료 인상이 한인들에게 주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기주 변호사는 “과거에는 H-1B 신청자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최근에는 “대부분이 투자 이민인 E2 신청을 주를 이룬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도 H-1B를 신청하는 사례는 극히 줄었다며 E2 등의 다른 비자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사추세츠 기업들에 타격 클 듯

이민국의 H-1B 데이터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에서 2005년 2,019개 기업이 H-1B를 신청해 총 1만2천 525건의 비자가 승인됐다. 가장 많이 승인된 기업은 피델리티 테크놀로지 그룹으로 1171건의 비자가 승인됐다. 2위는 랜드스테드 디지털 LLC로 470건, 3위는 VIRTUSA로 467건이 승인됐다.

학교중에서는 하버드가 136건을 승인받았으며, MIT는 11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학교와 비영리 병원단체 등은 H-1B 추첨을 거치지 않고 신청자수에 제한이 없다.



한인들의 매사추세츠 주내 H-1B 비자 승인 건수는 이민국의 데이터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미국 전체적으로는 전체 비자 승인 건수의 1%-1.5%를 차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추정 한다면 올해 들어 120여명이 넘는 한인들이 비자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10만 달러를 부과하는 경우 1만여개가 넘는 비자 중 대부분 감소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스톤글로벌은 물론 외국인 학생들 없으면 이 자리가 미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지만 외국 학생들이 제공하는 양질의 인력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학생들도 타격을 받겠지만 이에 못지 않게 기업들도 많은 타격을 받게 될 예정이다. 특히 영세 기업은 상대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며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론 머스크, 사티아 나델라, 순다이 피차르 등 빅테크 CEO들이 모두 H-1B를 통해 미국에 진출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대만계인 젠슨 황, 독일계인 피터 알렉스 카프 같은 이민자도 없었다면 미국은 지금의 미국과 많이 달랐을 것이다. 미국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안타까울 뿐이다.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870.0508
978.870.0043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ICE 레먼스터서 이민자 체포위해 5세 여아 미끼로 사용 논란

▶▶1면에 이어서 했다.

아내 자넷에 따르면 16일 고열과 호흡 곤란으로 남편이 자신을 병원에 데려가던 중 ICE 차량이 뒤따르자 집으로 방향을 틀면서 사건은 발생했다. 남편은 체포될 것을 우려해 집으로 뛰어 들어갔고, 딸은 차에 남아 있었다고 덧붙였다.

연방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시아 맥러플린은 성명에서 메히아가 2000년 불법 입국했으며 ICE 작전의 표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가 아이를 차에 버리고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ICE는 “아이를 걸고 협박의 미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요원들이 (차량에 남겨진) 아이의 구조를 도와 경찰서에 데려다 놓았다”고 해명했다. 아이는 약 3시간 뒤 할머니에 의해 픽업됐다. 그러나 메히아의 변호사인 제이콥 겔러는 “ICE가 분명 아이를 미끼로 활용했다”며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다.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2일 후 ICE는 출근하려던 그를 집앞에서 다시 체포해 수갑을 채우고 쇠고랑으로 발을 묶어 차에 태웠다. 현재 플리머스 교정시설에 구금 중인 그는 난민 신청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메히아는 2024년 가정폭력, 목조르기, 아동 위협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같은 해 4월 모두 기각된 전력이 있다.

모라 힐리 주지사는 사건 영상을 보고 “불쌍한 5세 여아를 보고 가슴 아아했다. 이민단속국의 단속 방법이 정말 충격적이다”고 비판했다. 주지사는 범죄경력이 없는 조경사,



부모, 건설 노동자들을 체포하는 것, 5세 여아를 협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정말 우려스럽다. 이는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스턴 글로브 보도에 따르면 수개월째 매사추세츠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 ‘오퍼레이션 패트리엇’의 주요 무대가 되고 있다. 특히 행정부가 하루 3,000건의 체포 쿼터를 설정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숫자를 맞추기 위한 무차별 단속”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주민 제보 기반의 자원봉사 조직인 ‘LUCE 이민정의네트워크’는 지난주 한 주 동안 주 전역의 ICE 목적·접촉 신고 전화를 700건 접수했다. 관계자는 “2주 전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증가한 수치”라며 “지역 사회의 공포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법률 지원 현장도 변화를 체감하

고 있다. 그레이터 보스턴 리걸서비스(GBLS) 이민팀의 매기 모건 책임 변호사는 “이민 당국의 우선순위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예컨대 이민 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법원 기일이 잡혀 있는 이들에게 체포 속도가 빨라졌다”고 지적했다. 단속은 주로 새벽 시간대, 주민들이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순간을 노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체포 방식 자체도 한층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모건 변호사의 의뢰인 가운데 한 명인 에드가 에스코바르는 지난주 물든에서 출근길 검문 과정에서 창문을 파손하고, 요원들이 테이저를 겨누는 상태에서 연행됐다.

앤드레아 캠벨 검찰총장은 “공공 안전과는 전혀 무관한 잔인하고 공격적인 체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지역사회의 두려움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라며 규탄했다.



사건이 발생한 스카이메도우컨트리클럽, 매사추세츠와 바로 인접해 있다

내슈아 결혼식장 찾아 총격...1명 사망·2명 부상

23세 용의자 현장에서 체포, 팔레스타인 해방 외쳐 내슈아 시장, 이 같은 사건 살고있는 어느 곳에서도 발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매사추세츠와 접경하고 있는 내슈아의 한 컨트리클럽에서 결혼식이 진행되던 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내슈아 스카이메도우컨트리 클럽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망자는 59세 로버트 스티븐 디체사레로 가족과 함께 토요일 결혼식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당국은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 헌터 네이도(23)에게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다른 피해자에 대한 기소도 추가할 예정이다. 네이도는 오는 월요일 내슈아 제9회법원에서 기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는 이 골프장의 전 직원이었다.

당초 두 명의 총격범이 있다는 초기 추측도 있었지만, 수사 결과 단독 범행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나 사망자와 용의자 사이에 알려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결혼식 하객으로 현장에 있던 매사추세츠주 페퍼웰 출신 톰 바텔슨은 “신랑과 신부가 춤을 추기 위해 모였을 때 6발의 총성이 울렸으며 모두가 혼비

백산해 몸을 숙이고 피신했다”고 전했다. 또한 총격범이 “아이들은 안전하다”,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이라고 외쳤다고 말했다.

목격자 에밀리 에른스트는 총을 든 남성이 검은 옷과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전하며 “총을 겨누는 순간을 보고 곧장 주방 쪽으로 달아났다”고 말했다.

사망한 디체사레씨는 결혼을 앞둔 딸 그리고 아내와 이 결혼식에 참가했으며 아내와 딸을 보호하기 위해 총격범에 맞섰으며 결국 참변을 당했다.

짐 돈체스 내슈아 시장은 “경찰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범인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이런 사건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살고 있는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슈아는 보스톤에서 북서쪽으로 45마일 떨어진 매사추세츠 접경 지역이며 각종 소포물이 위치해 있어 인근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hsb@bostonkorea.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중은치과, 중은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엄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 MA, 15777



내셔널그리드는 11월 1일부터 4% 가스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에버소스는 13%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주지사가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주지사 에버소스 13% 가스요금 인상안, 터무니 없다

에버소스 약 가정당 13% 인상, 내셔널그리드는 4% 인상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 유틸리티 회사 에버소스(Eversource)가 올 겨울 가스 요금을 가정당 13%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는 가스 요금 인상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심사를 촉구했다.

힐리 주지사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요금 인상은 터무니없다”며 “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DPU)가 이번 인상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앞서 지난 3월 난방비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자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겨울 시즌을 앞두고 매사추세츠 주요 가스 공급사들이 제출한 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내셔널그리드(National Grid) 고객은 약 4% 인상, 에버소스 고객은 최대 17% 인상이 적용될 예정이다. 에버소스 측은 평균적인 가구의 경우 겨울철 난

방비가 월 약 41달러, 즉 약 13%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상분의 상당 부분은 가스 설비 유지 및 투자 비용에 쓰이며, 일부는 가스 구매 비용과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등 공익적 비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인 전기 및 가스 요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 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주 상원의원 22명이 초당적으로 DPU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주지사는 현재 주의회에 제출된 ‘에너지 비용 절감 법안’을 통해 향후 10년간 약 1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안은 전기 요금 청구 방식과 자원 조달 구조를 개편해 불필요한 요금을 줄이고, 원자력 등 새로운 전원 자원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주정부 발행 채권 등을 활용해 투자비용을 선납 부담이 아닌 장기 분산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

〈전체 기사 읽기〉

됐다.

하지만 인상 논란은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2026년 주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공화당 후보 마이크 케넬리 전 주 주택경제개발부 장관과 브라이언 쇼츠슬리브 전 MBTA 경영진은 “힐리 주지사의 무책임한 기후 정책이 요금 폭등을 불렀다”고 비난했다.

반면 모라 힐리 주지사는 가스관 확충을 포함한 ‘전원 다변화 전략’을 지지하며 단기적으로는 가스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놴다. 실제로 그녀는 최근 보스톤에서 열린 행사에서 사우스이스트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 지역을 잇는 알곤퀸(Algonquin) 가스관 확장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번 인상안의 승인 여부는 DPU의 최종 심사에 달려 있으며, 승인될 경우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hsb@bostonkorea.com



케임브리지시 프리스쿨 프로그램 10월 1일부터 지원 접수

〈보스톤=보스톤코리아〉한새벽 기자 = 케임브리지 시가 2026-2027학년도 프리스쿨 프로그램(Cambridge Preschool Program, CPP) 지원 접수를 10월 1일부터 시작한다.

케임브리지 유아교육국은 10월 1일(수)부터 11월 14일(금)까지 CPP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CPP는 케임브리지에 거주하는 만 4세 아동과 일부 만 3세 아동에게 무상으로 양질의 프리스쿨 교육을 제공하는 공공 지원 프로그램이다. 일반 공립초등학교와 같은 학기 및 수업시간제로 진행된다. 여름 방학까지 포함하는 종일반, 연중반 과정은 일부 가정의 경우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CPP는 하나의 통합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케임브리지 공립 학교, 시 휴먼서비스부(DHSP), 지역 기반 프리스쿨 및 가정 보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선택할 수 있다. 모든 CPP 교실은 학습 준비도와 사회·정서 발달을 중점으로 한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지원 자격은 2026년 8월 31일까지 만 4세 또는 만 3세가 되는 케임브리지 거주 아동이다. 단, 만 3세 아동의 경우 좌석이 제한적이며 추가 자격 요건이 있을 수 있다. 유아교육국은 학부모와 보호자를 위해 두 차례의 설명회를 제공한다. CPP 입학 박람회: 9월 27일(토)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케임브리지 린지 앤 라틴 스쿨(459 Broadway) 카페 테리아에서 열린다. 참가자는 CPP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둘러보고 기관 관계자와 질의 응답을 나눌 수 있다. 어린이 놀이 활동, 공연, 아이스크림도 준비된다. CPP 온라인 설명회: 9월 29일(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줌(Zoom)을 통해 열린다. CPP 지원 자격, 프로그램 선택지, 신청 및 배정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다. CPP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www.earlychildhoodcambridge.org/cpp)에서 확인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전체 기사 읽기〉

CPP 온라인 설명회: 9월 29일(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줌(Zoom)을 통해 열린다. CPP 지원 자격, 프로그램 선택지, 신청 및 배정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한다.

CPP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www.earlychildhoodcambridge.org/cpp)에서 확인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2025 본당의 날
2025. 9. 21(주일)
대성전 / 본당 마당

11:00 본당의 날 기념 미사
Cristiano Borsoso 보스턴 디오코
교구 주교 미사 헌신

12:30 식사 나눔 (성도회)

13:30 본당 화합 레크리에이션

본당의 날에는 오전 9시 30분 전에 미사가 있습니다. 일찍 부탁드립니다.

본당 주소
45 Ash St,
Newton, MA 02458
(617) 558-2711

가톨릭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예비신자 교리반 식별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및 장소 9월 28일(주일) 오후 1시, 보스톤 한인성당 시제관
본당 홈페이지 참조 www.bostankorean catholic.com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불우한 한인 돕기 - 사랑 나누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위한 지원

뉴튼에 위치한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주임 신부 배웅진 크리스토퍼)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보스톤 지역 내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는 “사랑나누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종교의 유무에 관계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힘들어하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성당으로 연락해 주시면 신부님과 사회복지사분과에서 상담하여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공동체와 함께 따뜻한 손길을 모아 물질적, 정서적, 영적 지원을 포함하는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문의 및 후원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전화: 617-558-2711
이메일: help@bostonkoreancatholic.org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턴 근교 애플픽킹 어디를 가야하나?

(보스턴=보스톤코리아) 김유림

〈전체 기사 읽기〉

기자 = 뉴잉글랜드의 가을을 제대로 느끼는 가장 완벽한 방법 중 하나는 단연 애플픽킹이다. 빨갛고 노란 단풍이 물든 과수원에서 직접 사과를 따며, 갓 튀긴 사이더도 넋을 빼어 물고, 신선한 사과 사이더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은 그야말로 보스턴 가을의 진수를 보여준다. 하지만 보스턴 주변에는 농장이 너무 많아 어디를 골라야 할지 고민이 될 것이다.

Boston Magazine, Meet Boston, 그리고 Boston.com에서 선정한 베스트 애플픽킹 명소 중 공통으로 꼽힌 네 곳을 엄선했다. 각각의 농장은 개성과 매력이 뚜렷하고, 보스턴에서 접근성이 좋아 주말 나들이 코스로도 안성맞춤이다.

어떤 농장을 선택하든 사과 향기 가득한 과수원에서 보내는 하루는 올가을 최고의 추억이 될 것이 분명하다. 가을의 한자락 풍요롭고 즐거움 가득한 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자.

Belkin Family Lookout Farm - 나틱(Natick)

1651년에 문을 연 벨킨 패밀리 룩아웃 팜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지속 운영 농장 중 하나다. 단순히 사과만 따는 곳이 아니라 옥수수 밭과 헤지 밭, 어린이를 위한 놀이 공간, 염소와 양을 구경할 수 있는 동물 우리까지 갖추어 하

루 종일 머물러도 즐길 거리가 많다. 주말에는 농장에서 직접 만든 맥주와 하드 사이더를 맛볼 수 있는 탭룸이 열리고, 라이브 음악과 퀴즈 이벤트도 진행되어 마치 작은 가을 축제에 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보스턴에서 약 40분 거리에 있어 당일치기 나들이 장소로도 좋다.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하고 가는 것이 더 저렴하니 미리 구매해서 방문해보자. 직접 사과를 따는 것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가능하며 요일마다 다른 종류의 사과를 딸 수 있으니 확인해 보고 가면 좋을 듯하다.

픽킹종류:

9/23 (화) - 9/26 (금): Asian Pears, Honeycrisp Apples, Macoun Apples, Jonagold Apples, McIntosh Apples (limited)

9/26 (토) - 9/27 (일): Asian Pears, Honeycrisp Apples, Macoun Apples, Jonagold Apples, Golden Delicious Apples, Cortland Apples, McIntosh Apples (limited), Gala Apples (limited)
주소: 89 Pleasant Street, South Natick, MA 01760

입장료: 온라인 \$33/현장 \$38 (3세 이하 무료)

웹사이트: <https://www.lookoutfarm.com/>

Boston Hill Farm - 노스 안도버(North Andover)

보스턴 힐 팜은 아늑한 가족 운



영 농장이다. 이곳에서는 사과를 직접 따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염소, 닭, 토끼 같은 귀여운 동물들과 교감하는 재미도 있다. 농장 매장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뿐만 아니라 사이더 도넛, 샌드위치, 수프 등을 판매해 방문객들이 간단히 식사를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시즌에 맞춰 자체 재배한 농장 매장에서 판매해 계절별로 다양한 농산물을 신선하게 구매할 수 있다. 작은 규모 덕분에 한적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져 가족 단위 나들이에 특히 어울린다. 올해는 호박밭도 개방한다고 한다.

주소: 1370 Turnpike St, North Andover, MA 01845

웹사이트: <https://www.bostonhillfarm.com/>

Brooksby Farm - 피바디(Peabody)

세일럼 근처에 위치해 있어 할로윈 이벤트나 유령 투어 전에 들

러 시즌 여행 코스로 함께 묶기 좋으며, 브록스비 팜은 보스턴 북쪽 해안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농장 중 하나이다. 봄과 여름에는 베리 따기와 꽃 자르기, 피크닉을 즐길 수 있고 가을에는 사과와 호박, 국화 장식을 구입할 수 있다. 겨울에는 홀리데이 파이와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판매해 사계절 내내 농장을 방문할 이유가 있는 곳이다. 알파카와 염소 같은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보며 먹이를 줄 수 있는 사료도 마련되어 있어 아이들과 함께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다.

주소: 54 Felton St, Peabody, MA, 01960

웹사이트: <https://brooksbyfarm.org/>

Russell Orchards - 입스위치(Ipswich)

보스턴에서 한 시간 정도 북쪽에 있는 러셀 오차드는 드라이브 만으로도 충분히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다. 매킨토시, 애플파이, 코

틀랜드 등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다양한 사과 품종을 직접 딸 수 있고, 줄지어 늘어선 사과 나무 사이를 거니는 경험은 특별하다. 크레인 비치와 가까워 해변 나들이와 함께 하루 코스로 다녀오기 좋고, 과수원 한편의 피크닉 테이블에서 갓 딴 사과를 맛보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에도 안성맞춤이다. 특히 해안 지역의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애플픽킹을 즐기고 싶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픽킹종류:

Gala, Cortland, Empire, Jonagold, McIntosh, Liberty, Autumn Crisp, Fuji Apples

비용: \$28

주소: 143 Argilla Rd, Ipswich, MA

웹사이트: <https://www.russellorchards.com/>

bostonkorean@hotmail.com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mchae@dependableusa.com
web: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매년 7월
장소: 보스턴
문의: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학교 협의회 주최 2025년 가을 정기 교사 연수회

주제: **작은 변화, 큰 배움: AI 시대의 한국학교 교수법**

2025년 9월 27일 (토) 7:00 PM~9:45 PM
온라인 (by Zoom)



전체 강연

임성혜 박사 (Dr. Carol Lim)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조교수 & MGH 정신과 전문의
제목: 마음 건강, 뇌 건강

분반 강의 (선택 수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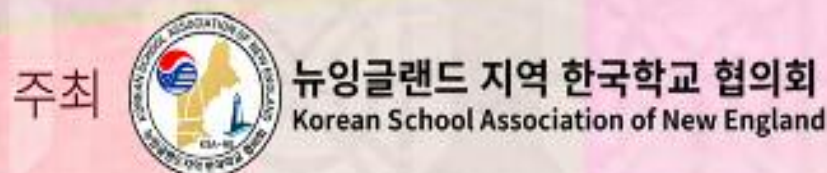
- 이중언어 과정:
홍순주 강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이중언어 과정 교수법
- 유아 & 유치 과정:
장은아 강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작은 손, 큰 배움-기초 과정 한국어 수업 디자인 & Canva 활용법
- 기초 과정:
이보람 강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수업이 달라지는 1도 변화: 바로 쓰는 교수법
- 초급 과정 이상:
이정설 강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기계의 시대, 사람의 언어: AI와 함께하는 글쓰기 수업
- 차세대 교사 (고등학생/보조교사 대상):
노진/윤준호/최서경/최유나 강사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선배들이 전하는 K-Teacher 성장 이야기

참가비: 교사 \$20/1인
마감 후 등록 및 비회원교 교사 \$25
신청마감: 9월 20일

등록:
https://forms.gle/nvqv_g8fBJKqbbzMA7



2025년 가을 정기 교사 연수회 신청서



피아노 밖의 백혜선, 독립운동 애환 담은 음악회 만들어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 기획과 연주 맡아 보스턴과 뉴욕서 공연
뉴욕 독립기념관 재단 이사장, 광복 80주년 기념 홍보대사 역도
백혜선 교수, 멋진 10월의 밤...깊은 감동의 자리 될 것 확신

(보스턴=보스턴코리아) 이상원 객원 기자,

편집부 = 피아니스트 백혜선이란 이름은 각종 국제 콩쿠르 수상으로 장식된 피아노 거장이란 수식어와 분리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아노 앞이 아닌 피아노 밖에서의 그녀의 이야기도 귀를 솔깃하게 만든다.

교수 외 최근 붙여진 또다른 명함은 뉴욕 한인교회 독립운동기념관을 운영하는 디아스포라 재단 이사장이다. 한국 독립기념관 광복 80주년 홍보대사이기도 하다. 독립운동 기념관과 광복 80주년 홍보대사란 직함은 우리가 알고 있던 피아니스트 백혜선의 모습과는 조금 낯설다.

백혜선 교수는 내달 3일과 5일 광복 80주년 기념음악회 연주자이자 기획자로 보스턴 뉴욕 무대에 선다. 조던홀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피아노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번 음악회는 100년전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던 뉴욕한인교회에서 시작됐다. 2021년 창립100주년을 맞은 뉴욕한인교회는 독립운동가들의 숙소이자 이민자들이 나라의 미래를 논의하던 공간이다. 드라마 <미스터 선사인> 속 주인공의 실존 인물 흥기환 열사가 머물던 곳이기도 하다.

현대 이민자의 삶도 그리 녹록치 않듯 100년전 이민자들의 삶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모두가 드라마 자체였을 것이다. 백혜선 교수는 뉴욕 한인교회의 애환이 쌓인 역사를 특별한 음악무대로 가져왔다. 타향에서 수구초심 고국을 생각하는 이민자들의 마음도 담아낸다.

이번 80주년 음악회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또한 뉴욕한인교회의 독립운동기념관 재단 이사장으로 기획한 음악회다. 뉴욕 클래식 플레이어즈, 김동민 지휘자, 피아니스트 백혜선이 1부 무대를 장식하며, 2부에선 작곡가김택수 교수의 신작 칸타타 <들풀 The Grass Still Grows>이 세계 초연된다.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음악위원이자 본지 객원기자인 이상원 씨가 백혜선 교수와 이메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 독립기념관의 광복 80주년 홍보대사를 맡으셨고, 10월 3일과 5일에 보스턴과 뉴욕에서 진행되는 기념 음악회를 직접 기획하셨다. 배경과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백: 코로나19는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것을 다시 시작하게 했고 바뀌 놓기도 했다. 2019년에 제가 섬기던 뉴욕한인교회(633 W. 115th St., New York, NY)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재건축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이를 기념해 100주년 창립기념음악회를 2021년으로 계획하고 김택수 교수님에게 작곡을 의뢰했다. 그런데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모

<전체 기사 읽기>

든 것이 중단되고, 공연 계획이 무산됐으나 한국의 국가보훈부와 연결이 되어 교회 내에 독립운동기념관이 들어오는 것이 계획됐다.

이 교회는 1921년 3월 29일 뉴욕타운홀에서 첫 번째 뉴욕 독립운동을 하면서 뜻을 모아 세워진 동부 지역의 첫 한인 교회였다. 또 임시정부 인사와 독립운동가들이 묵을 수 있는 유일한 한인 숙소였다. 1층은 예배실, 2층과 3층은 방들로 쓰였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어려움을 나누고 나라를 위해 계획하며 서로 위로하는 장소였다.

많은 교인들이 연로하여 퇴임하시거나 세상을 떠나시는 상황에서 제가 점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독립운동가들과 뉴욕한인교회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며 글을 쓰시다가, 유명한 드라마 <미스터 선사인>의 실제 모델인 황기환 열사가 저희 교회 출신인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그 목사님께서 황기환 열사의 무덤을 발굴하신 것을 알게 되었다.

저의 친조부도 대구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제가 독립운동가의 손녀인 것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는 한국의 천안 독립기념관 광복80주년의 홍보대사가 되었다.

뉴욕한인교회의 독립운동기념관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허가가 3년이나 지연되어 작년 말 영구 허가증이 나왔다. 개관 준비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결국 제가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보스턴에서 학생들 가르치며 뉴욕의 독립운동기념관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마침 광복 80주년인 올해에 개관이 예정되면서 2019년에 지휘자 김동민 선생님, 작곡가 김택수 선생님과 함께 의논을 시작했던 이 음악회가 드디어 성사되게 되었다.

보스턴 한미예술협회에 처음 협력을 의뢰할 때는 교회나 작은 연주장소를 찾았었는데, 마침 조던홀이 개천절에 맞춰 딱 하루 비었고, 총영사관에서도 후원을 해 주셔서 이렇게 음악회가 가능해졌다는게 꿈만 같다.

더구나 뉴욕한인교회 성가대에서 제 지휘 아래 솔리스트로 활동하던 성악가들(지금 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주역 가수로서는 분들)이 음악회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출연자 한 분은 다른 오페라 공연 리허설이 있는데도, 우리 음악회를 위해 아일랜드에서 날아온다. 우리 선열들의 아픔과 희생이 이제 이렇게 예술로도 꽃피워지고 승화된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다.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지난 2월에 여행 중 갑자기 돌아가셔서 독립운동기념관을 운영



하는 디아스포라비영리재단의 이사장을 제가 맡게 되었다. 이 음악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제 힘이 아니다. 모든 게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번 콘서트는 뉴욕 독립운동기념관을 음악으로 알리는 기회임을 깨달았고, 이를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번에 연주하시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황제>는 선생님께 있어 어떤 곡인가?

백: 베토벤의 "황제" 는제가 학생 때부터 러셀 서먼 선생님의 연주로 항상 익숙하게 들었던 너무 멋진 곡이다. 베토벤의 3번 협주곡이 영웅적이고, 4번이 여왕 같고 보석 같다면, 5번 "황제" 는 패기가 넘치고 활력소 같은 당당함과 우아함이 있다. 또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의 춤을 추게 하는 흥겨움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친다. 완전히 청각을 잃은 베토벤이 어떻게 이렇게 무한한 에너지를 주는 곡을 작곡했는지 이해가 안될 정도다. 베토벤이 유일하게 이 곡만 초연을 하지 않았는데, 그 생각을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개인적으로 이 곡은 저를 연주자로 거듭나게 해주었고, 많은 지휘자와 호흡을 맞추고 연주 경험을 하게 해 준 곡이다. 뮌헨 필하모닉과의 협연, 정명훈 선생님과 런던 심포니와의 한국에서의 첫 협연, 한국 오케스트라들과 함께 했던 외국 순회 공연, 이번 주에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한국개 도시 순회 공연 등 저와 같이 30년을 살아온 곡이라 하겠다.

-피아노와 함께해 온 인생, 앞으로 어떤 목표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백: 이젠 목표는 별로 없다. 다만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리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 또 언제쯤 학교를 떠나 제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까하는 꿈을 하곤 한다(하하). 60세에 세운 계획은 70세가 되면 완전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서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살아 봐야 알 것 같다.

-보스턴 한인사회에 전하는 인사와 10월 3일 연주회에 초대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백: 보스턴에서 세계 초연되는 김택수 선생님의 신작 칸타타 "들풀 The Grass Still Grows" 는 제로부터 우리의 민족성이 물씬 느껴진다. 정말 힘들게 지켜온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나 뛰어나고 강한 민족, 밟아도 여전히 자라나는 우리 민족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다.

오셔서 불멸의 베토벤의 음악에서 다시 한번 용기와 에너지를 받으시길 바란다. 또한, 김택수 교수님 작품은 네분의 엄청난 한국인 성악가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귀한 자리이다. 보스턴에서 이런 기회를 만나는 정말 쉽지 않다. 에너지 넘치는 뉴욕 클래식 플레이어즈와 김동민 지휘자가 함께 할 이번 연주는 우리의 발자취와 뿌리를 생각하게 할 것이고,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뿌듯함을 느끼게 할 것이다. 멋진 10월의 밤, 깊은 감동의 자리가 될 것을 확신한다.

보스턴 총영사관과 보스턴 한미예술협회의 후원으로 마련된 무료 공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꼭 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백혜선 교수는 안정된 직장 서울대를 떠나 미국에서 다시 연주자로서 길을 선택했다. 클리블랜드음악원 교수직을 거쳐 2019년부터는 모교인 뉴잉글랜드음악원에서 후학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피아노과 공동학과장이라는 보직을 맡고 여러 일로 분주하지만 언제나 연주자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있다.

<공연 정보>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 자유의 울림
Resonance of Freedom: In Commemoration of the 80th Anniversary of Korean Independence

장소: 뉴잉글랜드 음악원 조던 홀(290 Huntington Ave, Boston, MA)

일시: 2025년 10월 3일(금) 오후 7:30

입장료: 무료 (사전등록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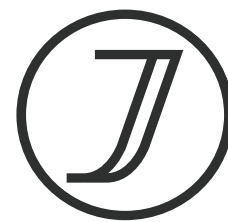
상세 정보: www.kcsboston.org

bostonkorean@hotmail.com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4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2024, 2025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2025)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 2025년 **Boston Magazine** 선정 '최고의 에이전트'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Real Trends Verified 2024, 2025**)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찰리 커크 암살 2주만에 ICE 시설에 총격...美정치적 폭력 격화

탄피에 '안티 ICE' 문구 확인... 트럼프, 급진좌파 배후 지목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이념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미국에서 극단적인 정치적 폭력이 잇따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텍사스주(州) 델러스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건물물을 향해 조준 사격을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성은 29세 남성 조슈아 안이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안이 소지했던 탄환의 탄피에 ICE에 반대한다는 의미를 담은 '안티 ICE'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ICE 수감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진 이 사건도 2주 전에 발생한 청년 보수 운동 지도자 찰리 커크 암살처럼 정치적인 동기에서 계획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일으킨 요인과 관련해 야당인 민주당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사건에 대해 "급진 좌파 민주당 당원이 끊임없이 법 집행 기관을 악마화하고 ICE 폐쇄를 요구하고 ICE 요원을 나치에 비유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反)과시즘을 표방하는 극좌단체 '안티파'를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이후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전

국적으로 ICE 요원을 적극 투입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과 진보 성향 단체들의 반발이 확산했다.

미국 전역의 ICE 구금 시설 인근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빈발했고, 경찰이 최루탄 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 7월 초에는 텍사스 알바라도의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경찰관 1명이 다쳤다.

또한 같은 달 텍사스 맥앨런 소재 국경순찰대 시설에서 요원들을 향해 소총 수습발을 발사한 27세 남성이 사살됐다.

한편 이날 사건의 용의자 안은 2020년 텍사스 민주당 예비선거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클라호마에서 무소속으로 유권자 등록을 했고, 지난 대선에서 투표한 기록도 확인됐다.

그는 미국의 인터넷 커뮤니티 레드잇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정치에 대해선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NYT의 전언이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비디오게임이나 자동차, 애니메이션 사우스 파크 등이었다.

이와 함께 안은 2015년 대마초 판매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oman@yna.co.kr



24일(현지시간) 총격사건이 발생한 미국 텍사스 델러스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건물 인근에 출동한 경찰.

젤렌스키 "러시아 드론이 유럽 하늘 날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는 시작에 불과하다. 러시아 드론이 이미 유럽 전역에서 날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도발과 확전 시도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잇따른 러시아의 영공 침범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작전은 이미 여러 나라로 확산하고 있다. 푸틴은 전쟁을 확대해 계속하려 한다. 지금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화를 도울지, 러시아와 계속 거래하며 이 전쟁을 계속하도록 도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며 러시아와 교역 상대국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를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론 생산과 개발을 크게 확장했다며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군비경쟁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드론을 이용해 전문적으로 살상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수만 명

에 달한다. 이런 종류의 공격은 총칼이나 폭탄보다 막기가 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쟁을 멈추고 세계의 군비경쟁에 대응하는 게 나중에 지하 유치원을 짓거나 핵심 인프라를 위한 대규모 병커를 건설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든다"며 전쟁을 멈추도록 도와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는 인공지능(AI)으로 위협이 커질 수 있다며 전쟁 무기와 관련한 AI 규제를 각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dada@yna.co.kr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유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유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유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트럼프 에스컬레이터 고의로 세웠나...미 비밀경호국, 조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백악관 비밀경호국이 유엔총회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춘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유엔 직원들이 고의로 에스컬레이터를 멈춰 세운 것은 아닌지 살펴볼 것이라는 취지인데, 유엔은 백악관 영상 촬영 담당자가 실수로 안전장치를 잘못 건드린 데 따른 우연한 사고일 뿐 고의적인 방해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와 미국 NBC 방송에 따르면 유엔 총회장의 에스컬레이터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발을 딛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멜라니아 여사의 발이 에스컬레이터에 닿자마자 멈춰 섰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여사는 멈춰 선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했다.

고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발단은 유엔 내부 직원들이 총회 전 에스컬레이터를 끄는 것과 관련한 농담을 나눴다는 내용이 지난 21일 더타임스의 주말판인 스테이타임스에 보도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을 삭감하면서 유엔이 자금 부족에 직면해있다

는 점을 알리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꺼버리고 돈이 떨어져 가동할 수 없으니 걸어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게 어떨겠냐는 취지의 '농담'이 오갔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엑스(X·옛 트위터)에 "유엔 관계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고의로 멈췄다면 즉시 해고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도 "주말 동안 런던의 타임스에서 우려스러운 내용이 보도됐다"며 "유엔의 직원들이 미국 대통령을 함정에 빠트리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으며, 모든 정황을 종합해볼 때 우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비밀경호국이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 중"이라며 "만약 유엔 직원들이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의도적으로 넘어뜨리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엔은 자체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은 백악관 영상 촬영 담당자의 실수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의 도착 장면을 기록하기 위해 미국 측

촬영기사가 먼저 에스컬레이터에 올랐고, 그가 도착했을 무렵에 영부인이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내디뎠다"며 "바로 그 순간 에스컬레이터가 멈춰 섰다"고 설명했다.

두자릭 대변인은 이어 "기계 중앙 처리장치(CPU) 기록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에스컬레이터 상단에서 안전장치가 작동하면서 멈춰 선 것

로 나타났다"며 "이 안전장치는 사람이나 물체가 에스컬레이터에 실수로 끼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백악관 촬영 담당자가 의도치 않게 이를 작동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위야 어찌 됐든 에스컬레이터 멈춤 사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

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하려고 할 때 프롬프터(자막기)마저 고장 나자 그는 자신이 2기 취임 후 7개의 전쟁을 끝냈지만, 합의 과정에서 유엔으로부터 전화 한 통도 받지 못했고 "유엔으로부터 받은 것은 올라가는 도중 한가운데서 멈춘 에스컬레이터와 고장 난 프롬프터뿐"이라고 비꼬았다.



유엔총회장의 에스컬레이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올라탄 순간 멈춰섰다.

당신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소아우울증을 위한 도움이 내 곁에 | 🔍

정신건강 위기 관리 기관,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위기에 처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세요?

가까운 행동건강센터를
찾아보세요.

mass.gov/CBHC



카카오톡 대개편 후, 사용자들 "업데이트 켜다" 불만 속출

온라인 커뮤니티서 '자동 업데이트 끄는법' 게시글 잇달아 친구 목록 없어지고 격자형 피드에 광고 게시... "피로감 들어"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카카오톡[035720]이 15년 만에 역대급 카카오톡 개편을 단행했지만 일부 이용자는 이번 업데이트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카카오톡 친구탭이 친구 목록 대신 프로필 업데이트가 나오는 이번 개편에 대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전날 카카오는 이프(if) 카카오를 열고 친구 탭에 피드형 사용자환경(UI)을 도입하고 친구의 프로필 변

경 내역을 타임라인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친구의 이름, 프로필 사진, 상태 메시지가 목록형으로 정렬됐다면 이번 업데이트로 프로필 사진, 배경 사진, 게시물 등이 격자형 피드에 표시돼 소셜미디어(SNS)와 같은 형태라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이러한 친구 탭 개편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아영(32)씨도 "안 친한 친구, 업무용 연락처 프로필 변동 내역이 친

구 탭 화면 가득 표시돼 피로감을 느꼈다"며 "피드 중간에 친구 게시글과 동일한 크기로 광고가 나오는 것도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앱 내 광고 크기가 커졌다는 게시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직장인 김모(29)씨는 "친구 목록에 광고 계정이 올라왔다"며 "화면에 광고가 표시되는 비중이 커진 것으로 느껴진다"고 답했다.

X(엑스·옛 트위터) 이용자 'do***'는 "광고 배너 크기가 업데이트 후 위아래로 커진 것 같다"는게

시글을 올렸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 자동 업데이트를 끄는 방법이 확산하고 있다.

권준혁(31)씨는 "온라인상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치면 '카카오톡 자동 업데이트 끄는 법'이 나온다"며 "카카오톡 업데이트에 대한 반응이 안 좋은 것을 보고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꺼줬다"고 말했다.

이대성(29)씨도 "이미 카카오톡을 업데이트한 사람들은 이전으로 롤백할 수 없느냐며 아우성이다"라고 했다.

전날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이프 카카오 키노트 세션 후 기자실을 찾아 "업데이트 후 일부 이용자의 불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개편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built@yna.co.kr, krshg@yna.co.kr

카카오톡 주요 신규 기능

+ 카나나 (지체시)	카나나인카오톡	이름자의 카카오톡 대화 상황을 이해한 뒤 이용자에게 먼저 카톡(선독)을 보내 일정 관리, 정보안내, 예약 등 제공
	카나나검색	기존 심(서) 검색 대체, 대화 중 시 불러내 검색 결과 공유
● 오픈시 협업	챗GPT 탑재	· 오픈시 최신 모델 GPT-5 탑재. 챗GPT에서 제공 중인 검색, 이미지와 파일 업로드, 이미지 생성 사용 가능 · 카카오톡 데이터는 챗GPT 학습에 이용되지 않고 서버에 따로 저장되지 않음
	카카오에이전트	챗GPT에 요청 시 별 전환 없이 카카오톡 외부 서비스 연결
👤 친구	피드 형식 프로필	친구의 프로필 변경 내역과 게시물을 타임라인 형태로 확인
	친구 숨김 설정	내가 친구로 추가한 사람만 프로필 열람 가능
● 채팅	채팅방 폴더	만남, 친구, 직장 등 카테고리별 채팅방 분류 가능. 인원을 폴더에서 읽지 않은 메시지 내용 미리 확인 가능
	메시지 수정	말풍선을 길게 누르고 수정, 대화 상대는 수정 전 내용 확인 불가
🎧 지금됨 (신설)	보이스톡 통화내용 요약	
	숏폼 기능	숏폼 제공 및 영상 생성 기술 지원
	오픈채팅 커뮤니티	오픈채팅에 입장하지 않아도 콘텐츠를 보며 함께 대화 가능

연합뉴스 자료: 카카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20250923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SEP. 26th - OCT. 2nd, 2025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PORK KIMCHI JIGAE

You've seen it in every K-Drama, every mukbang, and every Korean family table — that bubbling pot of fire-red goodness. Make it yours at home with the real-deal ingredients from H Mart.

칼칼하고 진한 김치찌개, K-드라마와 먹방 속 그 맛을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Small Bok Choy Tip 스몰 박초이 팁 LB \$1.79	U.S.A. #1 Potato 감자 LB \$0.49	Shanghai Choy 청경채 LB \$0.99	Lago Grape 라고 포도 6LB/BOX \$17.99	Green Onion 파 BUN FOR \$1.99	Natural Pine Mushroom 자연산 송이 버섯 LB \$49.99	Green Leaf Lettuce 청상추 BUN \$0.99
Garlic 마늘 5 PCS/PKG FOR \$2.99	Florida Pomelo 플로리다산 포멜로 LB \$1.99	Lychee 리치 LB \$2.99	Longan 롱간 LB \$2.99	ZESPRI SunGold Kiwi 제스프리 썬골드 키위 2 LB/PKG \$9.99	Green Seedless Grape 씨없는 청포도 LB \$2.99	Korean Pear 한국산 배 PRODUCT OF KOREA 9-10 CNT/BOX \$29.9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10.99	Fresh Beef Heel Meat 생소 사태 LB \$9.99
Fresh Pork Single Belly for BBQ 생 돼지 삼겹살 (바베큐용) SLICED/LB \$7.99	Fresh Pork CT Butt 생 돼지목살 (수육용) CHUNK/LB \$5.99
Fresh Boneless Chicken Thigh 생 뼈없는 닭 사태 LB \$3.99	Marinated Thinly Sliced Boneless Pork Shoulder Butt - Bulgogi 양념 돼지 불고기 LB \$5.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Live Abalone from Wando 완도산 활전복 PRODUCT OF KOREA/EA \$2.99	Pre-frozen Cod Fillet 대구 전감 LB \$7.99
Frozen Whole Cleaned Calamari 손질된 한치 U10/LB \$5.99	Frozen Tilapia 틸라피아 600-800'S/LB \$2.99
Head-on Shrimp 머리새우 20-30'S LB \$5.99	SUHYUP Frozen Seaweed Fulvescens 수협 매생이 LB \$4.99

SMART CARD MEMBER ONLY

NONGSHIM Spicy Vegetable Noodle Soup 농심 무파마 탕면 \$5.99 4.3 OZ X 4 EA/PKG	NONGSHIM Champong Ramyun 농심 오징어짬뽕 \$5.99 4.37 OZ X 4 EA/PKG
HAITAI Crushed Pear Drink 해태 갈아만든 배 \$11.99 8.04 FL OZ X 12 CANS/BOX	HAITAI Traditional Rice Drink Shikhye 해태 큰집 식혜 \$11.99 8.04 FL OZ X 12 CANS/BOX

NONGSHIM Tempura Udon Cup Noodle Soup 농심 튀김우동 소컵 \$7.99 2.64 OZ X 6 CUPS/BOX	NONGSHIM Soon Veggie Cup Noodle Soup 농심 순 베지라면 \$7.99 2.64 OZ X 6 CUPS/BOX	JONGGA Real Kimchi Ramen Cup Noodle Soup 종가집 리얼 김치라면 \$8.99 2.99 OZ X 6 CUPS/BOX	HALLA FOOD Tuna Sauce 할라식품 참치액 \$10.99 30.5 FL OZ	HAETAE Cooked Loach Stew 해태 추어탕 \$3.99 17.64 OZ
HAITAI Spicy Seafood & Fish Roe Soup 해태 해물알탕 \$4.99 19.4 OZ	SAMJIN Skewered Fish Cake 삼진어묵 꼬치어묵 \$7.99 2.2 LB	PULMUONE Natto 풀무원 순쌈나도 \$5.99 10.5 OZ	Q1 Sweet Korean Pancake Mix Original 큐원 찰호떡 믹스 2\$9 FOR 1.21 LB	GREENATION Red Pepper Powder 자연애 고춧가루 \$16.99 5 LB
ORION Turtle Chips 오리온 꼬북칩 \$8.99 12.35 OZ (14 EA/BOX)	ORION Marine Boy Snack 오리온 고래밥 \$8.99 21.16 OZ (15 EA/BOX)	HELLO! Fry Pan 헬로! 후라이팬 \$7.99 EA	HELLO! Fry Pan 헬로! 후라이팬 \$11.99 EA	HELLO! Fry Pan 헬로! 후라이팬 \$4.49 EA

TOBAGI

ENJOY KOREA'S GREATEST GIFT, MADE FRESH IN AMERICA.

한국인의 자존심, 토바기 김치!

최고품질의 재료들로 직접 정성을 다해 만들어 더욱 맛있습니다.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제봉 DIRECTOR 781.654.5281 jek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ellys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손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ahn@bostonpremierrealty.com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c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김지현 978.494.2043 jim@bostonpremierrealty.com	 노미연 617.447.0501 nohmiyeon@bostonpremierrealty.com	 박주 617.780.7639 tjpark@bostonpremierrealty.com	 장지연 978.866.3248 tjjang@bostonpremierrealty.com	 이진주 401.538.3397 tyyee@bostonpremierrealty.com
 박소연 617.338.0787 soyeon@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	 한수연 617.528.6973 hansoyeon@bostonpremierrealty.com	 민소연 213.503.0347 minsoyeon@bostonpremierrealty.com	 박지연 413.507.1400 parkjiyeon@bostonpremierrealty.com	 손정태 617.913.3348 sonjungtae@bostonpremierrealty.com
 최진진 617.877.0387 jinjin@bostonpremierrealty.com	 이정순 781.836.3412 soonyee@bostonpremierrealty.com	 한혜숙 781.959.1214 hanheesook@bostonpremierrealty.com	 장혜정 617.915.1162 tjjang@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국 617.543.0728 tjyee@bostonpremierrealty.com	 박진연 404.641.9102 wsohn@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94.58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482 nancywang@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531.0314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Vivian Ye 617.936.2713 vivianye@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7.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Lu Jiong 248.449.0117 jiong@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8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rra 978.873.0076 msorra@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u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8.26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6.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정혜연 박 201.446.8995 hyeyee@bostonpremierrealty.com	 재미크 김 781.596.0409 dick@bostonpremierrealty.com	 이신현 857.260.0434 shin@bostonpremierrealty.com	 Mini Belanger 413.257.1586 mini@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케데헌' 열풍에 찜질방·목욕탕·한의원도 인기

한증막·때밀이...외국인 관광객에 '새로운 체험' 서울한방진흥센터 'HAN의원'은 케데헌 성지로 "침·부항·약침에 감기약이나 소화제 구입도"

(서울=연합뉴스) 최혜정 인턴기자 =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재미있게 보기도 했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서 엄마와 함께 왔어요. (한증막이) 뜨겁긴 했지만 재미있는 경험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동대문구의 S 찜질방에서 만난 대만 관광객 A씨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등 K-컬처 열풍을 타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찜질방과 목욕탕, 한의원도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케데헌', SBS TV '런닝맨' 등 세계인을 사로잡은 콘텐츠에서 소개된 장소들이 '체험형 관광'과 만나면서 한국인의 일상생활 공간이 외국인들에게 '반드시 가봐야 하는 곳'으로 부상했다.

◇ '양머리' 두르고 불가마 속으로... '때 밀고 신생아 된다'

S 찜질방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24시 한증막 찜질방이다. 전통 한옥 양

만났다. 다만 A씨가 한증막을 나오며 어머니와 중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보고서야 관광객임을 알 수 있었다.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지에서 온 관광객은 같은 동북아시아인이긴 찜질방 전용 반팔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으면 겉으로는 한국인과 구별이 안됐다. 이러한 관광객들이 '케데헌' 인기를 타고 찜질방, 목욕탕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관광객들은 한국인처럼 자연스럽게 찜질방 한옥 마루 위에 앉아 담소를 나누거나 바다에 누워 TV를 보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였다. 식혜나 구운 달걀, 라면 같은 한국 찜질방 대표 간식도 맛봤다.

일본인 관광객 나기사(32) 씨는 "일본에도 사우나가 있긴 하지만 (한국과) 조금 다른 것 같다"며 "대체로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여행에 대해 "삼겹살, 냉면이 특히 맛있었다"고 말하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SNS에서도 외국인들의 찜질방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족욕 체험장에서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족욕 체험을 하고 있다.

이에 "진심 분위기가 너무 힐링된다"(the vibes are so soothing istg, "나도 평생에 한번은 꼭 한국 사우나에 가 보고 싶다"(I rly hope I go to a Korean sauna once in my life as well), "한국 사우나 영상을 더 많이 봐야겠다"(I NEED to see more Korea Sauna videos)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국 목욕탕도 인기다. 특히 '때밀이'를 '바디 스크럽'(body scrub)이

때(각질)를 밀어냈다"(Just got my first Korean spa body scrub..she removed layers of skin i didn't know I had)고 감탄했다.

한국식 때밀이 수건으로 직접 때를 미는 영상도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이용자 'Ayl***'가 초록색 때밀이 수건으로 직접 때를 미는 모습을 담은 영상 '최고의 보디 케어 방법'(Best BODY care ROUTINE)은 현재 조회수 752만회를 기록 중이다. 제목에는 '#한국때밀이(#koreanscrub)', '#한국뷰티(#kbeauty)' 등의 해시태그가 붙었다.

◇ '케데헌' 열풍에 한의원도 인기... 미국인 단체관광도

'케데헌' 인기에 한의원을 찾는 외국인들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SNS에는 영어 소통이 잘되는 한의원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된다.

통인한의원 이승환 대표원장은 24일 "많을 때는 하루 60명 방문객 중 10명은 외국인인 수준"이라며 "침, 부항, 약침 등 다양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혁한의원 원장은 "일본인 환자가 많이 방문하고 있다. 많은 날에는 20명 넘게, 적은 날에도 15명 정도가 온다"며 "일본 현지보다 저렴한 가격도 인기 요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조은한의원 원장도 "일본이나 동남아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다"며 "입소문이 나 감기약이나 소화제를 구입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케데헌'에 등장한 한의원과 유사한 모습이라고 입소문을 타면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찾은 이곳에서는 족욕 체험을 하러 온 미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만날 수 있었다.

커다란 창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는 공간에 12개의 족욕탕이 설치돼 있는데, 20분 체험 코스의 가격은 한탕에 6천원.

미국인 관광객들은 신발을 벗고 앉아 약쑥, 감국 등 계절별 약재를 넣은 따뜻한 물이 담긴 1~2인용 족욕탕에 발을 담갔다.

캐시(74) 씨는 따뜻한 약재 물에 발을 담근 채 "잔잔한 노래와 분위기에 마음이 편안해진다"며 웃었다.

주디(70) 씨는 "족욕 체험은 정말 만족스럽다"며 "사람들이 친절하고, 부대찌개 등 음식도 맛있어서 한국 여행 자체가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카렌(80) 씨는 물에 담근 발을 가리키며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다. 생각날 것 같다"며 미소지었다.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는 족욕 체험 외 보제원 한방 마사지, 한방안대 만들기 체험 등을 운영한다.

2층에는 '케데헌' 속 장면을 그대로 옮겨온 듯 꾸민 'HAN의원' 부스도 마련돼 있다. 캐릭터 얼굴을 뿔어 놓은 포토존 패널은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다.

또 맞은편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입구 앞에도 '케데헌'의 사자보이처럼 갖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한 포토부스가 설치돼 있다.

센터 관계자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고 일본인, 중국인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며 "주말에는 하루 200명 이상이 찾아올 정도이고 대부분 외국인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haemong@yna.co.kr
min22@yna.co.kr



식을 재현한 공간과 함께 한증막·아이스방·안마의자 휴게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기자가 찾은 22일은 월요일이라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였으나 언뜻 봐도 손님 중 절반가량은 외국인인 듯했다.

S 찜질방 안내데스크 직원은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외국인 손님이 많다"고 말했다. 입구 안내문도 중국어로 번역돼 있었다. 직원은 외국인 손님 실태를 설명하면서도 내부 사진 촬영 금지라고 당부했다.

한증막에서 주황색 수건으로 이른바 찜질방 복장인 '양머리'를 제대로 만들어 쓴 A씨 등 대만 관광객 4명을

유튜브에 '찜질방'(Korean Sauna)을 검색하면, '양머리' 수건을 두른 모습이나 구운 달걀을 맛보는 장면 등 외국인들이 직접 경험한 영상이 줄줄이 뜬다.

유튜브 해외 이용자 'hje***'는 '한국식 사우나에서 하룻밤 묵었습니다'(WE STAYED OVERNIGHT IN A KOREAN SAUNA)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말 그대로 가장 편안한 24시간 도전이었다. 한국에 있다면 강력히 추천한다"(It was literally the most relaxing 24-hour challenge. I highly recommend if you're ever in South Korea)고 말했다.

라며 호응하고 있다.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 'muv***'는 "한국식 바디 스크럽도 받고 싶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I wanna go get that Korean body scrub again, I felt like a brand New person)라고 썼다.

또 'Nel***'은 "한국식 바디 스크럽과 마사지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놀라웠다. 마치 신생아가 된 기분이다"(That Korean body scrub and massage was the most amazing thing ever, I feel like a newborn), 'Fai***'는 "방금 처음으로 한국식 스파 바디 스크럽을 받아봤는데...그녀(세신사)는 내게 있는 줄도 몰랐던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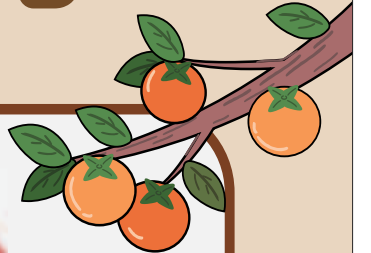
SEPT. 25TH - OCT. 2ND, 2025

LIMIT 2

**SURLASANG
GA-ON IH FRY PAN**

수라상 가온
IH 후라이팬

(PINK/GREEN)
28 CM/EA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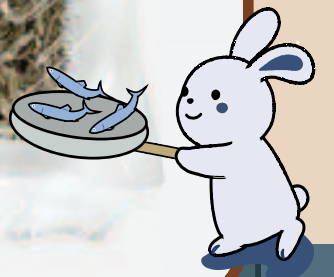
SUHYUP LIMIT 2
DRIED ANCHOVY

보령수협 지리멸치

20 OZ/PKG



\$15.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어쩔수가없다' 박찬욱 "원작보다 웃길 수 있을 것 같았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박원희 기자 = "원작을 읽을 때 원작보다 웃길 가능성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꼭 하고 싶었죠."

영화 '어쩔수가없다'의 박찬욱 감독이 23일 서울 삼정동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블랙코미디로 제작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밝혔다.

'어쩔수가없다'는 해고 당한 가장 만수(이병헌 분)가 재취업을 위해 잠재적 경쟁자들을 제거해나가는 이야기다. 도널드 웨스트레이크의 소설 '엑스'(THE AX)를 원작으로 한 영화는 만수의 재취업 도전기를 블랙코미디로 풀어냈다. 올해 열린 제82회 베네치아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첫선을 보인 뒤, 주요 외신들도 블랙코미디에 주목했다. 영화는 오는 24일 국내 관객과 만난다.

박 감독은 "블랙코미디로 할 계획은 없었고 쓰다 보니 이렇게 됐다"며 "이경미 감독을 비롯한 공동 각본가에게도 '진짜 코미디, 더 웃기게라는 말을 가장 먼저 했다'고 말했다.

영화는 슬랩스틱 코미디도 빈번하게 등장한다. 슬랩스틱 코미디는 주로 주연을 맡은 이병헌이 담당했다.

박 감독은 "사회 시스템 속에서 망가지는 노동자의 얘기를 다루다 보니,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었다"며 "이병헌 배우가 그런 것도 잘했다. 진지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제풀에 놀라는 그런 뒷모습에 점점 제가 재미를 붙이며 제작 과정에서 슬랩스틱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박 감독은 이병헌이 가진 장점도 전복시키며 지질한 만수를 완성해나갔다. 그는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병헌의 건치 미소를 한심하게 써먹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병헌이 가진 호소력도 적극 활용했다. 박 감독은 관객이 만수에게 공감하다가도 만수를 향한 응원을 멈추게 되는 줄타기의 역할을 이병헌이 해주길 바랐다고 했다.

박 감독은 "이병헌은 눈만 봐도 그렇고, 어느 배우보다도 호소력이 강한 배우"라며 "관객이 만수에게 흠뻑 넘어가 그가 잘 되길 바라면서도, 어느 순간 '내가 왜 만수를 응원하지'라며 만수가 이제 멈췄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했다"고 설명했다.

박 감독은 이렇게 완성된 코미디가 냉소로는 느껴지지 않길 바랐다.

"슬픈 이야기지만, 슬픈 분위기로만 만들면 재미없고 이렇게 해야 더 슬프다고 생각했어요. 불쌍한 사람의 이야기를 갖고 이렇게 웃겨도 되냐고 비판하는 것은 단

선적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총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머도 필요하죠. 다만 그 유머는 연민에 기초해야지, 냉소주의로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영화가 유지한 원작의 설정 중 하나는 주인공이 제지 회사에 다니다가 해고됐다는 점이다. 박 감독은 종이가 남들에게 하찮게 여겨지지만 당사자에게는 소중한다는 면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박 감독은 "종이는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쉽게 비벼버리는 식으로 하찮게 여겨지기도 한다"며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음식은 음식이듯이 손으로 만질 정도로 너무나 소중하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종이만 한 소재가 없었다"고 말했다.

영화는 최근 세태를 반영하며 원작과 다른 설정이 반영되기도 했다. 인력을 줄이는 인공지능(AI)이 대표적이다. 영화의 마지막도 AI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쓰였다.

박 감독은 영화 후반부 작업에서 가장 늦게 손 본 마지막 장면이 가장 만족스러운 이미지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아이디어가 공장의 불이 멀리서 하나씩 꺼진다는 것"이라며 "AI의 판단에 의해서 불이 꺼지는 것이다. 텅 빈 공간을 채운 암흑이 하나의 힘이 돼 인간을 밀어내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못 맞춰 베네치아영화제 심사용 버전에는 그것이 없었다"며 "영화 속 단일한 이미지로는 공장에서 불이 꺼지는 게 참 좋았다"고 했다.

박 감독은 이번 영화를 제작하며 자기 모습도 반영하게 됐다고 했다. 영화 속 인물들이 직업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여기면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는 "한 사람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 요소로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며 "영화를 못 만들면 나는 죽은 목숨인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영화 작업이라는 게 삶의 대부분인데요, 조금씩 그 비중을 줄여 나가려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않으면서 현명하게 살고 싶습니다."

encounter24@yna.co.kr

브라운아이드소울, 오늘 6년 만에 정규 5집 발매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보컬 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이 6년 만에 새 앨범을 발매하고 돌아온다.

소속사 룬플레이뮤직에 따르면 브라운아이드소울은 23일 오후 6시 정규 5집 '솔 트라이시클'(Soul Tricycle)을 발매한다.

브라운아이드소울이 완전체로 신보를 발매하는 것은 2019년 5집 하프 앨범 '잇 솔라이트'(It's Soul Right) 이후 6년 만이다.

신보에는 타이틀곡 '우리들의 순간'을 비롯해 1960년대 서던 솔스타일의 '러브 스킷', 1970년대 솔리듬을 살린 '어쩌면 너는 이렇게도' 등 8곡의 신곡과 기존 발매곡 6곡을 더해 총 14곡이 실렸다.

'우리들의 순간'은 돌아갈 수 없는 시절의 추억을 노래한 1990년대 감성의 컨템퍼러리 팝 알앤비(R&B)로, 그룹

의 하모니와 나열의 폭발적인 애드리브가 두드러진 곡이다.

타이틀곡 뮤직비디오에는 배우 안재홍과 신인 배우 김주원이 출연했다.

소속사는 "이번 앨범은 1960년대 서던 솔부터 70년대 필리 솔, 80년대 콰이어트 스톰, 90년대 컨템퍼러리 알앤비에 이르는 흑인 음악 흐름을 아우른다"며 "일본에서 직접 마스터링을 진행해 앨범 완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브라운아이드소울은 오는 26일 사운즈 한남에서 정규 앨범 발매를 기념하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2003년 데뷔 이후 발표한 앨범 관련 자료와 아트웍 등을 선보인다.

이들은 오는 12월 24~25일, 2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연말 단독 콘서트도 개최한다.

cjs@yna.co.kr



든든한 미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시작하세요.

Grace Kim 보험

★★★★★
메디케어 전문
★★★★★



- ✓ 신뢰와 경험의 전문가
- ✓ 쉽고 정확한 상담
- ✓ 최적의 플랜

생명보험
의료보험
(개인/직장)

장기요양 보험
(Long Term Care)

메디케어

평생연금
(Annuity)

IRA, 401K,
Simple IRA



Grace Kim

978.800.3467

✉ grace.kim@ebshealth.us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27) 주식시장 역사와 장기투자

투자자들의 대화 주제는 대개 요즘 뜨거운(Hot) 종목이다. 얼마에 투자했는데 얼마가 되었는지 무용담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저녁 식사까지 거하게 대접하니 믿지 않을 수도 없다. 그래서 친지를 따라 주식대박을 기대하며 투자 종목을 찾는다. 그러나 대박 종목을 찾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설사 운이 좋아 찾았다 해도 장기간 보유하여 큰 수익을 얻는 일은 더 어렵다.

1997년 아마존 IPO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현재 약 1,300만 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무려 13만% 이상의 수익률이다. 그러나 아마존의 주가 역시 직선으로 상승한 것은 아니었다. 닷컴 버블 당시 고점 대비 95% 가까이 폭락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매도한다면 연평균 30%라는 엄청난 수익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가 주식시장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 주가 폭등이나 폭락을 미리 준비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그러나 고점과 저점을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선가이자 투자자인 버나드 바룩은 이렇게 말했다. “바닥에서 매수하고 꼭대기에서 매도하려고 하지 마라.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은 기업의 펀더멘털 보다는 투자자의 감정에 좌우된다. 따라서 단기 예측은 곧 인간 감정을 예측하는 것이며, 수백만 명의 집단 심리를 맞추는 일은 불가능하다. 내일 아침 나 자신의 기분조차 알기 어렵지 않은가.

언론 기사, 방송, 인터넷, 유튜브는 모두 시시각각의 단기 투자 정보에 집중한다. “상반기 수익률이 좋았는데 갈아탈까요?”, “조정장이 온다면 잠시 쉬어야 할까요?”와 같은 기사 제목이 투자자의 마음을 흔든다. 그러나 성공적인 투자는 언제나 장기투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많은 투자자가 이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조급한 마음 때문에 실천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주식시장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전을 10번 던지면 앞면이 8~9번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100번 던지면 앞뒤 확률은 결국 반반에 가까워진다. 단기 투자에서는 수익률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장기 투자에서는 예상 수익률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원리와 같다.

워런 버핏의 동반자 찰리 멩거는 말했다. “미래를 결정하는데 역사보다 더 좋은 선생님은 없다. 30달러짜리 역사책 안에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답이 들어 있다.” 즉, 주식시장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미국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 11.95%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15%의 수익률

을 기록했는데, 이는 장기 평균 연간 수익률인 10.3%(과거 100년)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수익률 10%는 7.2년마다 투자금이 두 배로 증가한다. 가치 투자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투표 기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근육을 키우는 운동 기계이다.”

지난 30년 동안 신홍국 외환위기, LTCM 사태, 닷컴 버블, 9/11 테러, 주택시장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부채위기, 팬데믹, 40년 만의 고물가 등 숱한 위기를 겪었지만, 주식시장은 결국 회복하며 장기적으로 상승해 왔다.

과거의 주식시장 역사가 분명 보여준다. 주식시장은 오르내림을 반복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하고 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장기투자 하면 누구나 안락한 은퇴 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일부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계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을 받아 보는 방법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종이 신문 번갈아 매 격주로 발간됩니다. 보스톤 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매주 금요일 2만명의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고 있으며, 평균 5천명이 넘는 독자들이 이메일을 열어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문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첫째,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이란 제목으로 이메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매 격주 PDF 지면으로 이메일을 통해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 방법

1. 보스톤코리아 닷컴에 회원가입을 신청해주세요.
2. 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블랙코미디로 빛은 기상천외한 비행기 납치극...설경구 '굿뉴스'

(부산=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1970년 무장 혁명을 통한 자본주의 타파를 외치던 일본 적군과가 공지에 몰린다.

이들이 타개책으로 삼은 것은 비행기 납치. 입국할 때 통과해야 하는 금속 탐지기가 의무화되지 않았던 시기, 이들은 손쉽게 비행기를 납치하고 승객들을 인질로 삼는다.

이에 일본 자위대를 비롯한 당국자들이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모인다. 자칫하면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위급한 때, 고위 관료가 무력 진압 시 예상되는 인명 피해 수준을 실무자에게 묻는다.

"...5~10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너무 범위가 넓은 거 아니야?" 설경구가 주연을 맡고 변성현 감독이 연출한 넷플릭스 영화 '굿뉴스'는 일촉즉발의 비행기 납치극을 블랙코미디로 풀어낸 작품이다.

영화는 1970년 실제로 벌어진 요도호 사건을 소재로 해결사 아

무개(설경구 분)와 공군 중위 서고명(홍경)이 납치된 비행기를 어떻게든 서울에 착륙시키려는 이야기로 구성됐다. 요도호 사건은 일본 적군과가 민항기 '요도호'를 납치해 북한으로 망명을 시도한 사건이다.

'굿뉴스'는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이어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초청돼 국내에서 첫선을 보였다.

'굿뉴스'는 실제 사건의 열개만을 빌려오고 이야기의 세부적인 요소는 코미디에 맞춰 재구성했다. 사태를 해결해야 할 관료들이 대책 없는 회의를 하고 납치범이 납치를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잘 모르는 식이다. 진지한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전달함으로써 영화는 풍자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일본, 한국, 북한, 미국 등 나라를 오가며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을 폭넓게 묘사해 풍자의 화살은 모두에게 향한다. 변 감독은 적절하게 음악을 써가며 상황의 아이러니함을 빚어낸다.

코미디를 위해 다양한 수단도 활용한다. 서부극의 형태를 빌려 장면을 묘사하는 패러디를 비롯해 일본 만화 '내일의 죠' 등을 인용해 웃음을 유발한다. 변 감독은 경쾌한 편집으로 코미디 요소를 적절히 배합하며 시종일관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이어간다. 실제 사건에 바탕을 둔 여러 상황은 그 덕에 더욱 기상천외하게 다가온다.

배우들의 호연도 영화의 관전 요소다. '굿뉴스'를 포함해 변성현 감독과내 개의 작품을 함께한 설경구는 아무개의 첫 등장부터 능청스러운 연기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눈에 띄지 않지만 어느 순간 일을 해결하는 정체불명의 아무개처럼, 설경구는 다른 배우들에게 자리를 내주다가도 등장하면 화면을 장악하며 극을 끌어간다.

중앙정보부장 박상현 역의 류승범은 영화 '부당거래'의 검사주 양역을 떠올리게 하는 카리스마와 해학을 선보인다. 이외에 특별출연으로 여러 배우가 깜짝 등장



해 장면을 수놓는다.

영화는 이야기의 중심 캐릭터인 아무개와 서고명의 서사도 충실히 담았다. 이들의 서사는 극중 언급되는 달의 의미와 맞물려 영화의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제목

인 '굿뉴스'의 의미도 주제 의식이 나타날 즈음 선명해지며 여운을 남긴다.

영화는 다음 달 17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encounter24@yna.co.kr

9월 28일 - 10월 4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철저히 계획을 세운 뒤에</p> <p>● 운수: 늦춰서 좋은 일이 있고 미루고 늦추다가 낭패를 겪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 금전: 예상 밖으로 생긴 일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출만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미리 철저히 계획을 세운 뒤에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줄 날이 있겠지. 위안하면서 견뎌내야 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8, 2일 길일, 1, 4일 주의.</p>	<p>소띠 전화위복의 계기로</p> <p>● 운수: 어렵게 보이던 상황도 자신의 의지력에 따라 얼마든지 전화위복의 계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 금전: 당장은 좋아 보이고 편한 것처럼 생각되어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혼자서 헤쳐나가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 애정: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서로 타협해야 해결책도 생깁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8, 3일 길일, 2, 4일 주의.</p>	<p>범띠 돌다리도 두들겨보면서</p> <p>● 운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일에서 돌다리도 두들겨보면서 건너가는 신중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 애정: 소소한 일이라고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아주 소소한 일로 틈이 벌어지면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 4일 길일, 29, 3일 주의.</p>
<p>토끼띠 깨끗하게 정리해야</p> <p>● 운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 금전: 당장은 욕심이 나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 애정: 오래된 가구를 버리고 방을 깨끗하게 해야 새로운 가구가 들어올 수 있듯이 마음도 깨끗하게 정리해야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30, 1일 길일, 28, 4일 주의.</p>	<p>용띠 희망적인 결과를</p> <p>● 운수: 자신만의 무대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할 만하겠습니다. ● 금전: 조금만 달리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머리를 쓰면 쓸수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 애정: 꼭 이어져야 할 사람과 결국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집안에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으니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8, 30일 길일, 29, 4일 주의.</p>	<p>뱀띠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p> <p>● 운수: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사람을 주위에서 찾아보도록 하세요. 혼자서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 금전: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때가 왔습니다. 거래처가 늘어나고 수입이 나아질 것입니다. ● 애정: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9, 4일 길일, 30, 3일 주의.</p>
<p>말띠 가만히 있어야</p> <p>● 운수: 사소한 행동 하나가 가져다주는 파장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언행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 금전: 고집을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뭔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애정: 부부 사이의 문제는 두 사람이 해결하게 지켜보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설 일이 아니니 가족이라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30, 3일 길일, 28, 1일 주의.</p>	<p>양띠 아름답고 밝게 보는</p> <p>● 운수: 긴 시간 기다려온 일이나 결말을 짓지 못하고 끌고 오던 일이 좋은 방향으로 풀려나갑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 금전: 큰돈을 벌 기회가 생깁니다. 주머니 사정도 좋아질 것입니다. ● 애정: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도 옆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름답고 밝게 보는 시각이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1, 4일 길일, 29, 2일 주의.</p>	<p>원숭이띠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p> <p>● 운수: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정도 받게 되고 좋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갑니다. ● 금전: 부동산과 관련된 일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재운이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 돈이 들어옵니다. ● 애정: 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차신을 잘해야 이런저런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28, 2일 길일, 30, 3일 주의.</p>
<p>닭띠 뜻밖의 귀인을 만나거나</p> <p>● 운수: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면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뜻밖의 귀인을 만나거나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 금전: 어떤 일이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용을 가장 중요시해야 합니다. 단골이 찾아와 매상을 올려 주거나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 애정: 아기를 기다리던 부부는 하늘의 선물로 아기를 받게 됩니다. 건강한 아기를 잉태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9, 3일 길일, 1, 4일 주의.</p>	<p>개띠 장기적인 안목으로</p> <p>● 운수: 모든 일에는 마진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끝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금전: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풀려나갈 것입니다. ● 애정: 내가 상대에게 솔직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나에게 솔직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먼저 투명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30, 4일 길일, 29, 2일 주의.</p>	<p>돼지띠 다시 한번 점검해야</p> <p>● 운수: 자기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일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힘들 것입니다. ● 금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머릿속으로 많은 일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착하거나 이루는 일도 없이 금방 시간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 애정: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중간에 말을 자르거나 제대로 듣지 않으면 금방 후회하게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8, 1일 길일, 30, 3일 주의.</p>

매기강 "괴물에 깜짝 놀라, 봉준호 감독이 큰 영향 줬다"

(부산=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세계적으로 흥행한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매기강 감독이 고른 하나의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괴물'(2006)이었다.

21일 롯데시네마 센텀점에서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스페셜 토크에서 강 감독은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깜짝 놀랐던 건 처음이었다"며 '괴물'을 소개했다.

강 감독은 "아버지가 30년 넘게 일주일에 영화를 2~4편 정도 보시는 시네필(영화 애호가)"이라며 "2006년 크리스마스 때 아버지가 '엄청나게 히트한 한국 영화인데 같이 보자'고 하셔서 보게 됐다"고 떠올렸다.

그는 "스토리텔링과 코미디의 균형을 모든 차원에서 맞춘 영화를 본 게 굉장히 오랜 만이었다"며 "'괴물'을 본 이후로 봉준호 감독님은 제게 아주 큰 영향을 주셨다"고 말했다.

강 감독은 '괴물'의 모습이 처음 등장하는 초반부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그는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온 힘을 다해서 뛰어가는 괴물이 역동적이었고, 헤드폰을 낀 여성이나 가게에서 나오는 딸 등 여러 인물의 시각에서 경험하는 것을 각각 보여주는 것이 흥미로웠다"고 짚었다.

강 감독은 "처음 '괴물'을 봤을 때는 생김 것이나 뛰는 모습 등이 조금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인간 뼈를 토해내는 장면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그렇게 폭력적인 모습은 예상하지 못해 충격적이었고, '봉 감독님이 또 한 번 비틀기를 하는구나, 끊임없이 놀라움을 주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영화의전당 야외무대에서 열린 오픈토크 행사에서는 '케데헌' 흥행에 대한 소감도 밝혔다.

강 감독은 "어린 친구들에게서 받는 피드백이 가장 기억에 남곤 한다"며 "'딸이 '케데헌' 속 여성 캐릭터에 공감한다'는 부모의 말을 들을 때 기쁘다"고 말했다.



매기강 감독이 21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픈토크에서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어 "저희가 누군가의 세일러문, 누군가의 인어공주, 디즈니 공주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영화를 통해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캐릭터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한다"고 자랑했다.

그는 어린 관객들에게 "자신만의 개성을 끌어안고,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조언도 건넸다.

강 감독은 "저도 이 영화를 준비하며 많은 순간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게 맞는 방향일까' 하며 두려움을 느꼈다"면서 "하지만 제 모든 것을 쏟았더니 이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돌아봤다.

무당에서 아이돌로 이어지는 그룹 '헌트릭스'의 주요 서사를 만든 배경도 설명했다.

강 감독은 "헌트릭스 멤버들의 정체성과 무당의 정체성에 공통점이 많다"며 "무당들은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악귀를 퇴치하는데, 헌트릭스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무당은 한국 문화에 뿌리내린 전통이기 때문에, 캐릭터와의 연결성과 별도로 문화적인 부분도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국 문화가 이미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도 느

꼈다고 한다. 강 감독은 "한국 문화가 많이 담긴 영화를 제작하는 데에 넷플릭스가 큰 힘을 실어줬다"며 "한국문화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떠올렸다.

강 감독이 영화제 행사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렇게 많은 영화인과 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화라는 예술을 그려가는 모습이 감동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one@yna.co.kr

케데헌 '골든', 빌보드 싱글차트 통산 6주 1위... '톱10'에 4곡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서 여섯 번째 정상에 올랐다.

빌보드는 22일(현지시간) 차트 예고 기사에서 '골든'이 전주에 이어 정상을 지키며 '핫 100'에서 통산 6주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싱글차트에 처음 진입한 '골든'은 13주 연속 차트에 머물렀으며 이번 주까지

5주 연속 정상을 지켰다. 빌보드는 "'골든'은 빌보드 차트 역사상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부른 노래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1위를 기록한 곡"이라고 전했다.

빌보드 '핫 100'은 미국 스트리밍 데이터, 라디오 방송 점수(에어플레이), 판매량 데이터를 종합해 순위를 집계한다.

'골든'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 전주 대비 5% 감소한 3천 210만 스트리밍을 기록했다. 라디오 방송 점수는 16% 상승

한 3천 60만, 판매량은 6% 감소한 7천으로 각각 나타났다.

빌보드는 "'골든'은 '스트리밍 송' 차트에서 9주째 1위를 차지했고, '라디오 송' 차트 16위,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2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이번 주 싱글차트에서 '골든' 외에도 '소다팝'(Soda Pop)이 5위, '유어 아이돌'(Your Idol)이 6위, '하우 잇츠 던'(How It's Done)이 10위를 각각 기록해 총 4곡을 '톱 10'에 진입시켰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 행정부 H-1B 신청료 인상과 Gold Card (2025년 9월23일)

지난주 금요일 (2025년 9월 19일), 트럼프 행정부는 Presidential Proclamation (굳이 번역하자면 대통령 선언문 정도) 를 통해 이 민사회를 또 한번 혼란에 빠트렸습니다. H-1B 비자와 관련한 신청료를 십만불 (\$100,000, 약 일억사천만원 (\$1 당 한화 1,390 기준)) 으로 인상하는 것과 Gold Card 를 90 일 안에 실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 선언은 미국 대통령이 정책을 발표하거나, 사건을 기념하거나,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발표하는 공식 성명이며, 선언문은 그 내용과 대통령의 헌법적 또는 법적 권한에 따라 의례적인 성격일 수도 있고 법적 효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근 흔히 듣는 Executive Order 와 같이 법적 효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Presidential Proclamation 은 1863년 링컨 대통령이 발표한 노예해방 선언입니다. (물론, 이번 선언이 링컨대통령의 선언과 비교될 수 없겠지만요)

우선, H-1B 신청료와 관련해서는 벌써 여러가지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확실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민국의 세부 사항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충격이 큰 변화이고 당장 연장신청을 코앞에 둔 분들이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기다리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여러가지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동요하지 마시고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난 수개월간 논의되던 Gold Card 의 시행입니다. 미화 백만불 (한화 약 십사억원) 을 기부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돈내고 영주권 취득하는거야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 Gold Card 가 취업이민 1순위 (EB-1 extraordinary ability) 와 2순위의 National

Interest Wavier 카테고리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미 영주권은 해마다 발행숫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1순위와 2순위 신청자들의 자리가 뺏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Gold Card 를 취업1순위와 2순위로 분류하는 법적 기반을 백만불 투자를 하는 사람을 extraordinary ability 와 국가에 이익을 주는 자로 간주하겠다는 점입니다. 물론, 돈버는 것이 능력이 될 수 있겠지만 돈버는 것을 업적을 많이 쌓은 사람들과 같은 업적 또는 국가에 이익을 주는 것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지는 법적인 근거를 더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단지 범시행이 아니라 법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할 여지가 많아 행정부가 입법부의 권한 침범 여부도 위헌심판의 가능성을 높혀 줍니다.

계속해서 update 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



며 현재시점에서의 당부 말씀은 언론에 동요되지 마시고 일단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오래된 것이 편하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새로 산 구두를 신을 적이다. 발이 편하지 않다. 맞춤구두라면 불편함이 덜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마냥 편하지는 않은데 오래된 신발만 편하다. 구두가 발에 맞는 건지, 발이 신발에 맞추는 건지, 신다보면 발에 맞는 건지.

요즈음 내 일과이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샤워하고 같은 시간에

출근한다. 일터에선 같은 일을 반복하며, 거의 같은 시간에 퇴근한다. 집에 돌아오면 같은 시간에 저녁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든다. 오래된 내 일상이다. 그럴 적에, 움찔 다른 일이라도 생긴다면 일상이 엉크러져 우왕좌왕하기 일쑤다. 오래된 습관이 편하긴 하다.

오래전 타주에 살 적이다. 에릭 시겔의 작품 "닥터즈" 를 읽었다. 마침 아내와 아이가 한국을 방문중이었고, 일터는 연휴기간이었다. 때다 싶어 책을 구해 읽었던 거다. 읽는 재미에 푹빠져, 침식을 잃었던 기억이다. 아내의 잔소리가 없으니 독서의 천국이었던 거다.

보스톤에 이사와서 문득 그책 생각이 났다. 책을 다시 구했고, 책장에 고이 모셔두었다. 그게 20여년 전이다. 그런데 웬걸. 책이 눈에 띄었다. 오래된 그책은 먼지를 얹고 얽잡히 책꽂이에 꽂혀 있었던 거다.

반가운 마음에 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책을 읽기 시작한거다. 아니 이럴수가. 읽기에 속도가 붙어 빠르게 읽혔 나야겠다. 두번째 읽기였기 때문만은 아닐터. 소설의 배경이 보스톤이고, 하버드대학이니 더욱 그러 던 거다. 덕분에 오래된 이책을 읽어내려 가기 한결 순했던 바.

공지영의 시 한구절이다. 오래된다는건 좋은 일인가. 편하기에 좋은 일인가. 나이를 먹어 좋은 일인가.

나이를 먹어 좋은 일이 많습니다. 조금 무뎠고 조금 더 너그러워 질수 있으며

조금 더 기달릴 수 있습니다. (공지영 기억위로 세월이 덮히면 중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다. 백악관 연회장을 새로 지으라는 했다. 건물의 외양은 고대 그리스 아폴로 신전과 유사할 적에 고전주의에 한발 다가선다고도 했던가. 오래된 건축양식일 텐데, 새로 짓는 것도 그닥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마누라도 오래된 아내가 편한가?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히브리 8:13)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휴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휴람은 상담 - 예약 - 검진진행 - 사후관리를 보호자 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수면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오전 4시간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69만원 ~**

- 휴람 당일종합검진 + 수면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120만원 ~**

- 휴람 숙박종합검진 + 뇌MRA, 심장CT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240만원 ~**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 뇌MRI, 심장초음파, 복부조영CT, 흉부(폐)CT
갑상선초음파, 경동맥초음파 +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2일간 진행(오전 검사 시행) **437만원 ~**

- 휴람 VIP종합검진 + PET-CT(전신암정밀검사), 복부비만CT, 관상동맥CT
뇌심장정밀혈액검사 + 2일간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휴람 의료 네트워크 병원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 | |
|--------------|-------------|
|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 세란병원(독립문역) | 안산한도병원(선부역) |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해외동포 특별가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발성 골수종, 뼈 통증 반복되면 질환 의심해야'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최근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무서운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혈액종양내과 임 성원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혈액세포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백혈구는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백혈구의 한 종류인 림프구에 항체를 분비하는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병이 바로 다발성 골수종이다.

다발성 골수종은 고령 인구 증가로 국내에서도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다발성 골수종의 국내 환자 수는 2010년 약 1,000명에서 2020년

약 2,50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환자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해 고령화 사회의 주요 혈액암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다발성 골수종은 대부분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병하며, 주요 증상은 고칼슘혈증(피로감, 구토, 혼수), 신기능 이상(소변감소, 신부전), 빈혈(만성피로, 창백함), 뼈 침범(지속적인 뼈 통증, 병적 골절) 등이며, 무증상인 경우도 많다.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상당수가 뼈 통증이나 골절로 병원을 찾는다. 반복되는 통증이 지속된다면 단순 노화로 여기지 말고 정밀 검진을 받아봐야 한다.

다발성 골수종인 경우 비정상적으로 변한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인 항체 단백질을 생성하는데 이 항체 단백질을 보통 M단백이라고 한다.

혈액 또는 소변 검사로 M단백 존재를 확인하고 골수검사에서 형질세포 증가가 확인되면

침묵의 혈액암 '다발성 골수종'

- 다발성 골수종이란?** 백혈구의 한 종류인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병
- 증가하는 다발성 골수종**
 - 10년간 2배 이상 증가
 - 65세 이상이 60% 이상, 고령화 사회의 주요 혈액암
- 주요 증상**
 - 고칼슘혈증 (피로감, 구토, 혼수)
 - 신기능 이상 (소변감소, 신부전)
 - 빈혈 (만성피로, 창백함)
 - 뼈 침범 (지속적인 뼈 통증, 병적 골절)

자료 제공 : 메이치플러스 암시범원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한다. 이 외에도 뼈 조직검사에서 형질세포종양을 확인해 진단할 수 있다. 다발성 골수종은 병기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지는데, 예후 지표에 따른 생존율은 1기, 2기, 3기로 나뉜다. 예후가 좋다면 생존율은 80%에 달한다. 평균 생존 기간은 1기는 10년 이상, 2기는 7년, 3기는 3년 정도다. 다발성 골수종은 예후 지표가 좋다면 장기 생존이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환자의 나이와 건강상태에 따라 치료방법을 결정한다.

무증상인 환자는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관찰해 건강상태를 체크하며, 증상이 있다면 항암치료를 해야 한다. 70세 이하에 체력이 양호하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완치도 기대할 수 있다. 70세 이상 고령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 대부분 불가능해 주로 항암제 2제나 3제 요법으로 치료한다.

다발성 골수종은 일반적으로는 완치가 힘든

암이지만, 일부 환자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완치에 가까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로 고령에게 발병률이 높은 질환이므로 항암치료로 병을 조절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치료하게 된다.

“ '다발성 골수종', 뼈 통증 반복되면 질환 의심해야 ”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치과** 서비스 **휴람** 을 이용해보세요!



나이를면서 잇몸질환으로 고민이 많으시죠?
치과의 퀄리티는 당연히 한국 치과입니다.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치료기간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신 치과치료...
지금 상담을 통해 치료견적 확인 후 한국에서의 치과치료 준비해보세요!!!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 치과 이벤트

- 1 임플란트 오스템 **[99만원~]**
- 2 임플란트 외산 **[165만원~]**
- 3 스케일링+구강검진+치아X-RAY **[5만원~]**
- 4 라미네이트 **[40만원~]**
- 5 미백 **[30만원~]**
- 6 전체틀니 **[180만원~]**
- 7 크라운 **[40만원~]**
- 8 충치치료 **[국내수가]**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치아 X-RAY 사진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 상기 치료는 병원에 따라 치료항목에 따른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치과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미소랑치과(양재역, 발산역, 서울대역, 셋강역)
옥스치과(강남역)
스카이뷰치과(신논현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내도 되는 미국 병원비를 내고 있었다니! 미국 병원의 'FAP 제도'

미국 내과 / 비만 전문의 이용현

Charles River Medical Associates - Obesity Clinic
61 Lincoln Street, Suite 301, Framingham, MA 01702
508-820-8332

‘안내도 될 병원비’가 3조 원 넘게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나도 감면 대상일 수 있습니다

병원비 고지서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내 몫이겠지...” 하고 바로 납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환자들이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비를 전액 납부하고 있습니다.

- 병원이 먼저 알려주지 않아서
- 내가 자격이 되는지 몰라서
- 영어로 된 서류가 부담스러워서
- 이미 치료를 받았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2. ‘비영리 병원’ 이라면 반드시 FAP (Financial Assistance Policy) 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전체 병원의 약 60% 이상은 IRS에 등록된 비영리 병원(501(c)(3))입니다.

이 병원들은 FAP를 법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모든 환자에게 이를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FAP은 ‘자선’ 이 아닙니다.

이건 병원이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환자들은 청구서가 나오면 “내야겠지...” 하고 그냥 결제합니다.

3. 소득 수준에 따라 병원비 전액 면제 또는 부분 감면도 가능합니다

병원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방빈곤선(FPL)의 200~400% 수준의 소득이면,

병원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1인 가구 연 소득 약 \$30,000 수준 → 전액 면제 자격 가능

· 4인 가족 연 \$70,000 수준 → 부분 감면 자격 가능

단, 이 수치는 병원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기준은 해당 병원의 FAP 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위 예시는 단지 “대략 이 정도에서 자격이 나올 수 있다” 는 참고용입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 병원 웹사이트에서 "Financial Assis-

tance" 또는 "Charity Care" 를 검색

2. 신청서(FAP application)와 요약본(Plain Language Summary) 다운로드

3. 청구서가 나오기 전에도, 이후에도 신청 가능 (일반적으로 청구 후 240일 이내 가능)

4. 필요한 서류: 소득 증빙, 세금 신고서, 가족 구성 정보 등

5. 한국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에 따라 한국어 번역본을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어떤 병원은 Medicaid 수급자, 푸드스탬프 수혜자 등은 자동 자격 승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진료 후 이미 낸 병원비에 대해 소급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5. 이 제도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 수천 달러를 아낄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정책은 다르지만, 적용만 되면 \$1,000~\$10,000 이상의 병원비가 줄어드는 일도 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청구서를 받고도, 아무 정보 없이 전액 납부하고 있는 현실은 바뀌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나는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보험이 있으니까 해당이 없겠지...”
“이미 진료 다 끝났는데 신청해도 되나...”

그 어떤 것도 확인 없이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더라도, 지금 바로 병원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에서 FAP를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병원비가 ‘사실은 안내도 되는 돈’ 일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No Cost Refinance, 정말 비용이 없는 걸까?

Article (18) -No Cost Refinance?

Michael Lee

VP of Mortgage Lending | NMLS 1464242
GENERAL MORTGAGE CAPITAL CORPORATION | NMLS 254885
300 Washington St, Suite 315, Newton, MA 02458
(978) 314-8818
mike.lee@gmccloan.com

주택담보대출을 리파이낸스(재융자)할 때 흔히 듣는 표현 중 하나가 ** “No Cost Refinance” **입니다. 말 그대로 비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형태든 **모든 리파이낸스에는 클로징 비용(Closing Cost)**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No Cost” 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1. 클로징 비용을 대출금에 포함하는 방식

첫 번째 방법은 발생한 비용을 새로운 대출금에 포함(Roll-in)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만불 대출을 리파이낸스할 때 약 7천불의 클로징 비용이 나온다면, 최종 대출금액은 50만 7천불이 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대출 원금이 늘어나므로, 단기적으로는 더 많은 원금을 갚아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낮은 이자율의 영향으로 상환해야 할 총액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2. 이자율을 조금 더 받고, 은행 크레딧으

로 비용 총당

두 번째 방법은 이자율을 조금 높게 선택하는 대신, 은행에서 제공하는 Lender Credit을 받아 클로징 비용을 총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대출금액은 늘어나지 않고, 실제로 주머니에서 나가는 현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낮을 수 있는 금리 대신 다소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되므로, 월 납입금이 비교적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재융자하는 모기지도 장기간으로 유지할 계획이라면 낮은 금리를 선택하여 비용을 대출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궁극적으로 지불하는 총 이자가 줄어들기에 장기적으로는 유리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매각이나 또는 이자율이 더 낮아질 때를 대비해 다른 리파이낸스를 고려하고 있다면, 렌더 크레딧을 최대한 활용해 No Cost Refi-



nance 방식으로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리파이낸스는 단순히 금리를 낮추는 작업이 아니라, 비용과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장기적인 재정 결과가 달라지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따라서 “No Cost” 라는 표현만 믿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구조로 비용이 처리되는지 꼼꼼히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파이낸스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계획에 맞는 구조를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재융자를 고민하고 있다면 마이 크리와 함께 가장 알맞은 옵션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BostonKorea.com 광고와 함께 확실한 비즈니스 성장을 이루어 보세요



성기주 변호사

617.504.0609
law@lookjs.com

백영주 부동산

617.921.6979
clarapaik@gmail.com

나무 건축

617.775.4771
info@namuma.com

제이슨 전 부동산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최은경 부동산

781.690.4389
Chris.choi@compass.com

캠브리지 한인교회

155 Magazine Street,
Cambridge, MA 02139

보스톤 그레이스 비전 한인 교회

910.670.4858
info@gracevisionumc.org

성요한 교회

781.861.7799
stjohns2600@hotmail.com

김성군 변호사

781.438.6170
info@songkkimlaw.com

수잔 리 부동산

339.224.1512
susan@prorealty.group

켈리 김 모기지

617.733.5014
kkimthielen@radiusgrp.com

Grace Kim 보험

978.800.3467
Grace.kim@ebhealth.us

Hmart
hmart.com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2



3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